

#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진영일\*

<차례>

- I. 머리말
- II. 고대 탐라국의 상황
- III. 고대탐라와 일본
- IV. 고대일본의 탐라관(耽羅觀)
- V. 탐라와 조공제도
- VI. 맺음말

## 국문요약

탐라국은 백제 문주왕 2년(476) 백제에 조공한 이래 5~10세기 연간에 내외 여러 나라들에 조공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이는 탐라가 중국이 제시하는 조공 제도를 숙지하여 이를 대외 관계에 적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고, 또한 그 기록이 국내, 중국, 그리고 일본 사서들에 약 35회 정도 보인다. 이렇게 탐라국의 형성은 대외적 계기가 되는 조공과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외활동의 결과로 665년 당나라에 간 탐라사절은 일본보다 상위로 기재될 정도로 대외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백제 멸망 후 탐라국은 새로운 동맹국을 찾아서 일본에 30회 정도 사절을 파견하고 있었다. 이것도 정치적 동맹을 구하는 조공외교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일본 조정은 탐라국의 이런 시도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탐라국은 일본으로부터 고급직물, 농기구와 오곡종자 등의 선진문물을 수입하여 그 문화적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주제어 : 조공제도, 탐라국, 종주국, 복속국, 당, 백제, 신라, 일본

## I. 머리말

서기 5~10세기 사이 탐라국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8회,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1회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료들이 단편적이어서 탐라국 내부 사정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중국 역사서들에 7회 정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탐라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탐라국의 내부 사정을 전하는 자료가 1편 포함되어 있다.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탐라사신이 일본에 16회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집해(令集解)』·『연희식(延喜式)』에는 「탐라(耽羅)」라는 어구가 2회 단편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탐라를 지칭하는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고대탐라 관련된 사료들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리고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편적인 사료들이지만 이들을 모아서 서로 연관시키고, 그래서 어떤 줄거리를 세워서 고대 탐라상(耽羅像)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고찰 시기를 대략 서기 5~10세기 동안으로 한정한다. 물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료들을 인용하겠다. 그래서 이 사료들에서 당시 탐라국이 국내외의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탐라국의 어떤 성격에 유래했는지를 아울러 찾아보겠다. 필자는 여기서 다음 사항들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비록 사료들이 단편적이지만 이것들을 당시 국제관계의 시야에서 해석하

여 탐라국의 정체성을 탐색하겠다. 둘째, 탐라국이 일본에 보낸 사신들의 목적과 행적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국제질서를 규정했던 조공제도(朝貢制度)의 의미를 탐색해 보겠다. 셋째, 한 일본인 학자의 탐라국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하여 그것이 일본 중심의 역사적 선입관에 기인하였음을 지적하려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탐라에 관한 일본 자료 3편을 소개하여 장래 고대탐라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곧 일본인 문집들인 『성령집(性靈集)』, 『금석물어(今昔物語)』 그리고 『부상약기(扶桑略記)』에 수록된 탐라도(耽羅嶋)에 관한 3편의 자료들을 새로 찾아내어서 번역하고 등재하였다.

## II. 고대 탐라국의 상황

탐라국이 백제 문주왕에게 조공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재가 국내 사서로서는 탐라국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다. 그로부터 22년 후에 탐라가 조공하지 않자 백제 동성왕은 이를 무력 정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 ① [文周王 2년 4월, 476] 탐라에서 공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면서 탐라 사자에게 은술(恩率) 베풀을 내렸다(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 ② [東城王 20년 8월, 498] 왕이 탐라가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武珍州)까지 도착하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죄를 빌자 그만 두었다. 탐라는 즉 탐모라(耽牟羅)<sup>1)</sup>을 이르는 말이다

1) 金公七, 『耽羅語 研究: 濟州方言의 源流』(한국문화사, 1999), p.249, 州胡>毛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卽耽牟羅).

- ③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하였다. 전선 한 척이 탐모라(耽牟羅)에 표류하여 이르렀다. 배가 돌아가는데 백제 국경을 거쳐 가게 되었다. 백제 왕은 이들에게 물자를 매우 후하게 주어 보냈다. 아울러 사신을 함께 보내며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는 표를 올렸다. 수나라 고조는 이를 착하다 하면서 조서를 다음같이 내렸다. 즉 백제왕이 진나라가 평정된 것을 듣고 멀리서 表를 받들었다. 왕복이 지극히 곤란한 터인데 만일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백제왕의 마음 자취가 지극히 순박하다는 짐이 잘 알고 있다. 서로 거리가 비록 멀다 해도 일이 얼굴을 맞대어 말하는 것 같다. 하필이면 사절을 자주 보내어 서로 몸소 마음을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해마다 입공(入貢)할 필요가 없고, 짐도 역시 사절을 보내지 않겠으니 왕은 이것을 알지 어다. 그러자 백제사신이 기뻐서 춤추며 돌아갔다. ... 남쪽 바다로 3개월 가면 탐모라국(耽牟羅國)이 있다. 그 나라의 남북은 천여 리이며 동서는 수백 리가 된다. 토지에는 노루와 사슴이 많으며 백제의 부용국이다(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竝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 百濟王聞平陳 遠令奉表 往復至難 若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雖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使來相體悉 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 使者舞蹈而去 ...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麋鹿 附庸於百濟[隋書, 百濟傳; 威德王 36년, 589]).

사료 ①에서 문주왕 2년(476) 탐라국이 사자(使者)를 보내서 백제에

(羅)>屯(羅)>耽(羅)의 핵심적인 本義는 섬이었다.耽자에 이어진 羅자는 新羅의 경우와 함께 나(라)(통구스어 na 고구려어 那·奴, 백제어 奈, 신라어 那)의 音形으로 '地·國'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탐모라의 牟羅는 백제어 毛羅 '高·山'과 신라어의 牟羅 '城'(城曰健牟羅)과 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 方物[탐라국 특산물]을 바치고 있다. 그러자 백제는 사자에게 백제 관위(官位) 은솔(恩率, 백제 16관위 중 제3위)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탐라국이 해외에 사절을 보낼 정도의 「國」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탐라국이 사자를 보낸 해가 문주왕 2년이라는 데에 주목이 간다. 전년 475년 백제는 대재난을 만나 나라가 거의 멸망할 뻔하였다. 즉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하여 서울 한성(漢城)을 점령하였고, 백제 개로왕(蓋鹵王)이 전사하는 등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일대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同年 10월 개로왕 아들인 문주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즉위하였다. 그리고 백제 국도는 웅진(熊津)[현재 公州]로 옮겨갔다. 탐라국은 이런 내륙의 국제적 사건과 변동을 탐지하여서 백제의 새 서울을 찾아서 사절을 파견하였다. 백제 천도와 탐라 사절의 도착 간에는 6개월의 시차밖에 없다. 당시 내륙과 해상의 교통과 정보유통 정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탐라국이 대단하게 해외 사정에 대해 밝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필자가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이 탐라국의 출현이 원래 해외교역과 관련했음을 보여주는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다.<sup>2)</sup>

②에서 탐라가 공부(貢賦)[朝貢]을 바치지 않자 동성왕은 탐라를 정벌하러 무진주(武珍州)[현재 光州]까지 내려왔다가 탐라가 사죄하자 그만 두었다 한다. 탐라와 백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외교를 규정했던 조공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3장에서 언급할 바이지만 탐라는 자기 특산물품을 가지고 백제에 사절을 보내면, 백제는 탐라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백제에 중

2)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濟州島史研究會, 1994), pp.15-24;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p.154-164.

속국으로 대우하게 된다. 곧 백제와 탐라 사이에는 정치적 권력관계인 종주(宗主)-신속(臣屬) 관계가 설정되게 된다. 그러나 조공제도에 의한 이런 국가 관계는 양국 간의 국제적 형식적 의례에 불과하였지 그 이상 실질적인 속국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종주국은 종속국에 조공이라는 의례적 충성 표시를 요구하였고 종속국은 이를 통하여 선진문물을 도입한다든지 교역품을 받아서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런 조공관계를 가지고 탐라가 백제에 외교권 등의 국가로서 자주성을 상실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②의 해석은 탐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백제가 이를 응징하려고 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죄하자 그만 두었다는 것뿐이지 더 이상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곧 탐라가 현대적 의미에서 民事·軍事·外交 등에서 백제의 관리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 하겠다.

③에서 수가 중국을 통일한 해(589), 수의 한 전선이 탐라에 표착하였다. 그 배가 다시 백제 국경선을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백제 위덕왕은 선원들을 매우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한다. 모리 기미야키(森公章, 이하 「모리」라고 약칭)는 그 이유를 탐라가 백제 부庸국(附庸國)<sup>3)</sup>이었기에 때문이라 한다. 탐라국은 백제에 부庸했기 때문에 외국과 교섭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 전선은 탐라와 수가 아니라 백제와 수 사이의 교섭에 의해 귀국하게 됐다.<sup>4)</sup> 필자는 ③을 아무리 보아도 이런 주장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수의 전선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표착했고, 재차 귀국하는데 자기 나라의 중심부, 즉 서울 낙양(洛陽) 부

3) 附庸: 天子에 直屬하지 못하고 諸侯에 부속한 작은 나라(李相殷 監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86, p.1303).

4) 森 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朝鮮學會, 1981), pp.121-122.

근 해상 기지를 목표로 하여 북방 항로를 택하였다. 이럴 때 그 배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서해 연안, 곧 백제 연해를 경유하게 되었다. 이를 탐지한 백제왕은 새로 등장한 중국의 통일제국과 우의를 다지기 선원들을 매우 환대했고 사신을 동행시켜 귀환시켰다. 이에 대하여 수文帝는 매우 흡족하여 백제 사신에게 그 우의에 대한 간곡한 말이 있었다. 그러자 백제 사신은 춤추면서 귀국했다 한다. 이 이상 이 사료에서 백제가 탐라의 외교권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모리는 사료에 나오는 탐라가 백제의 부용국이었다는 어구에 구애되어 탐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문맥을 무시하면서 부분적인 단편 자구를 가지고 전체 문맥을 규정하는 「일부를 가지고 전부로 생각하는(pars pro toto)」 인간 사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附庸於百濟」란 일개 자구를 가지고 본고의 약 35개 정도의 다른 사료들에 출현하는 탐라국의 자율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백제 말고도 탐라국은 신라에도 외교사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모두 백제 멸망 이후인 것이 특색이다. 이에 관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① [文武王 2년, 662] 탐라국주(耽羅國主) 좌평(佐平) 도동음율(徒冬音律) 혹은 도동음진(徒冬音津)<sup>5)</sup>이 항복하여 왔다. 탐라는 무덕(武德) 이래 백제에 신속하였고 좌평으로 관호(官號)를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항복해 오니 속국이 되었다(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5) 金公七, 『耽羅語 研究: 濟州方言의 源流』, p.249. 冬音의 音義는 고구려어의 冬非 '圓'과도 대비되는데, 이는 탐라어이 頭無 '圓'과도 상관이 있다. 여기서 탐: 冬音, 冬音: 頭無, 頭無: 冬非가 系聯하지만, 島의 義와 圓의 義가 인접한다. 아마도 島形의 연상에서 나오지 않나 한다.

耽羅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② [문무왕 19년 2월, 679] 사절을 보내서 탐라국을 도모하였다(發使略耽羅國).

③ [哀莊王 2년 冬10월, 801] 탐라가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耽羅國遣使朝貢).

사료 ①에서 탐라국주 도동음율이 신라에 와서 항복하였고 신라 속국이 되었다 한다. 이것은 탐라와 백제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탐라는 신라에 조공하여 그 종주권을 인정하는 정도의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한반도에 벌어진 국제적 상황을 보면 이를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신라 문무왕이 즉위하기 2년 전 660년 6월, 당(唐)고종(高宗)은 소정방 등 10만 군으로 백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무열왕도 5만군으로 백제를 침공했다. 나당연합군은 7월 백제 국도 사비성(현재 扶餘)을 함락하여 의자왕과 백제인 1만 3천을 당으로 잡아갔다. 잔존한 백제군은 각지에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백제의 명운은 다한 것이다. 다음 해 661년 6월, 무열왕이 서거하자 태자 법민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가 곧 文武王이었다. 그러니까 탐라국은 주변국의 이런 대변동을 숙지하여 장차 한반도의 지배국이 되려는 신흥 신라국의 실정을 탐색하러 사절 파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도 신라 새 왕 즉위 때와 탐라사자의 신라 조정 출현 사이에 1년밖에 시차가 나지 않는데 주의가 간다. 백제 문주왕의 즉위시 탐라사신의 파견처럼 신라 문무왕의 즉위와 탐라 사절 도착이 1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사실은 탐라의 대외관계가 매우 용의주도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료 ②는 그 후 17년이 지난 문무왕 19년, 왕은 탐라가 제대로 조공



을 바치지 않자 이를 책망하러 사신 파견하여 조공을 재촉한 사실을 전하는 자료 같다. 모리는 「發使略耽羅國」 어구를 가지고 신라가 탐라를 침공하여 복속국(服屬國)으로 삼았다는 해석<sup>6)</sup>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자귀(字句)에 불과하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의 조공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發使」는 글자 그대로 외교사절을 보냈든지 출발시켰다는 뜻이고, 「略」은 문맥으로 보아 「침략·공략하다」보다는 「謀計하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나아가 문맥상으로 보아 단순한 외교사절이 군사력을 동반하지 않고 탐라를 어떻게 공략했다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신라 사신이 탐라에 와서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료 ③은 신라 애장왕 2년, 탐라사절이 와서 조공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탐라국은 신라에 조공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애장왕 때에 다시 재개한 것 같다. 하여튼 우리는 탐라가 그 생존전략이란 관점에서 내륙에서 일어난 백제와 신라의 멸망과 흥성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들에게 조공사(朝貢使)를 파견하여 사태 변화와 귀추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라국에는 王 또는 國主라 불리는 정치적 首長이 존재했다. 이에 관해서 국내외 사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① 용삭(龍朔) 원년 8월 다멸국왕(多蔑國王) 마여실리(摩如失利)·다복국왕(多福國王) 난수강의설(難修強宜說)·탐라국왕(耽羅國王) 유리도라(儒李都羅)가 함께 조정에 와서 각각 공물을 바쳤다. 3국은 모두 임읍(林邑) 남쪽 가에 있으며 해양 小國이다(龍朔元年八月 多蔑國王摩如失利 多福國王 難修強宜說 耽羅國王儒理都羅 並遣來朝 各

6) 森 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p.135.

貢方物 三國皆林邑之南邊 海小國也 [『冊府元龜』 外臣部 朝貢條, 龍朔元年: 661].

- ② 탐라국주(耽羅國主) 도동음률(徒冬音律) 혹은 도동음진(徒冬音津)이 항복해 왔다. 탐라 武德이래 백제에 신속하였으므로 좌평을 관호(官號)로 삼았다. 이때 이르러 투항해와서 속국이 되었다(『三國史記』, 文武王 2년 662)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 來降 耽羅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 ③ 탐라는 왕자 구마기(久麻伎) 등을 보내서 공헌하였다. ... 탐라왕에게 오곡종자를 하사하였다. 이날 구마기 등은 돌아갔다(『日本書紀』 天智 8년 3월, 669) 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 賜耽羅王五穀種 是日 久麻伎等罷歸).
- ④-A 탐라는 왕자 구마예(久麻藝)·도라(度羅)·우마(宇麻) 등을 보내서 조공하였다(『上同書』, 天武 2년 윤6월, 672) 耽羅遣王子久麻藝 都羅 宇麻等朝貢).
- ④-B 그리고 대재(大宰)에 명하여 탐라사절에 조서(詔書)를 내렸다. 즉 천황이 새로이 천하를 평정하여 처음 즉위하였다. 이로 인해 축하사절 이외에는 부르지 않았다. 이는 너희들이 친히 본 바이다. 또 사절이 출고 파도가 험하니 근심이 된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가거라. 그리고 탐라국왕과 사신 구마예(久麻藝) 등에게 비로소 작위를 내렸다. 그 작위는 大乙上이고, 다시 금수로 관(冠)을 장식하였다. 그 나라의 좌평의 官位에 해당하였다. 축자(筑紫)에서 돌려보냈다(『上同書』, 天武 2년 8월, 672)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卽位 由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又時寒浪險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九馬藝等鑿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筑紫返之).
- ⑤ 탐라왕 고여(姑如)가 난파에 도착하였다(『上同書』, 天武 4년 9월, 675) 耽羅王姑如到難波).

①, ②, ⑤에 의하면 7세기 탐라에는 국왕 유리도라, 국주 도동음률

그리고 탐라왕 고여(姑如)가 있었다. 그들은 사신들을 파견하여 당에 공물을 바치고 있다. ②에서 탐라국주는 백제 좌평이란 관호를 소지하고 있었다. 일본 사료인 ③, ④, ⑤에서는 王뿐만 아니라 王子라고 불리는 「구마기(久麻伎)」와 「구마예(久麻藝)」 등의 존재도 나타난다.

상술한 사료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세기 후반 본도에는 「國」이라 호칭하는 탐라국이 존재했으며, 여기에 7세기 후반, 왕과 국주라는 정치적 首長이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王의 차위(次位)에는 「王子」가 있어서 국주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일본에 파견되고 있었다. 그리고 ②에서 보듯 탐라국주 도동음률은 백제의 최고 관등인 좌평을 겸대(兼帶)했다. 이는 오랜 동안 탐라가 백제에 조공국으로서 그 긴밀한 유대관계를 반영하고 것 같다. 그러나 문무왕 2년(662)은 이미 백제가 멸망(660)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탐라국주가 망한 백제의 좌평 관작을 소지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전통 있는 백제의 관직을 빌어 탐라왕의 위치를 높이고 장식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④-B에서 일본조정(아마도 이런 탐라왕 또는 왕자들이 겸대한 좌평의 허구성(虛構性)을 간파했는지 그 지위를 일본 관위(冠位) 19階<sup>7)</sup> 중에서 하급인 16위 대을상(大乙上)에 비정한 데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다.

위의 사실은 우리들에게 희미하나마 7세기 후반 경의 탐라국에 탐라왕 또는 국주라는 지배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자들이 복수로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왕자들은 외교사절이 되어 해외에 나갔다. 그들 중에

7) 大化 5년(649) 제정된 19階 冠位: 1大織·2小織·3大繡·4小繡·5大紫·6小紫·7大花上·8大花下·9小花上·9大花下·10小花上·11小花下·12大山上·13大山下·14小山上·15小山下·16大乙上·17大乙下·18小乙上·19小乙下 (直木孝次郎, 『日本の歴史』 2: 古代國家の成立, [中央公論新社, 2004], pp.220-221).

는 탐라왕 고여(姑如)처럼 왕자에서 왕으로 승격한 자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적어도 탐라 내부에 간단하지만 위계적으로 배치된 지배 엘리트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계층화된 사회란 사회구성원의 생계를 지탱하는 기본적 생존전략자원(토지, 주택, 도구, 여자, 보석 등)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막는 상부 통제기구를 가졌다는 의미한다.<sup>8)</sup> 즉 당시 탐라사회는 전략적 자원을 통제하는 계층이 존재한 계층사회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초기적인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탐라 지배층은 필자가 다른 글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무역을 통해서 재부를 축적하고 있었다.<sup>9)</sup> 이런 경제적 환경의 전략적 부분을 통제하는 사회지도자의 존재는 국가형성의 여러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sup>10)</sup> 그래서 5세기 말엽부터 탐라사회는 내부적 위계제(位階制)를 갖추었고, 그리고 교역지(交易地) 산지항(山地港)을 통해서 주변국에 조공과 대외무역을 행하였다. 이렇게 대내적 지배관리 기구와 해외활동을 통한 재부축적과 해외 문물에 대한 지식 습득이 탐라가 원시적 평등사회를 벗어나서 불평등하고 계층적인 사회, 곧 원초 국가(pristine state)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양대 계기가 된 듯하다. 탐라는 일단 「국」 단계의 사회체계를 갖추자 해외에 국가사절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그에 관한 처음 기록이 백제 조정에 탐라 사자의 등장이

8) Morton Fried,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Random House, Inc., 1967), pp.182-194.

9)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pp.15-20.

10) 조나단 하스(Jonathan Haas) 지음·崔夢龍 옮김, 『원시국가의 진화』(民音社, 1989), p.216. 여기에 덧붙여 그의 주장은 계속된다. 이러한 통제는 국가사회를 진화론상 계층화 이전의 선행단계로부터 질적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경제적 권력기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무역이론에서 관료층들은 기본적 자원들의 지역 내의 혹은 지역 간의 교역을 통제함으로써 백성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다고 한다.

있다. 이런 탐라국에 대하여 10세기 후반의 중국 문헌인 『당회요(唐會要)』는 그 소식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탐라는 신라 무주(武州) 해상에 있다. 섬 위에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해 있다. 북쪽으로 백제와 떨어져 있기를 5일 거리이다. 탐라왕의 성은 유리이고, 이름은 도라(都羅)이다. 섬에는 城과 호(濠)가 없고 5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집들은 등근 울타리가 치져있고 지붕은 풀로 덮여있다. 호구는 8천이며 활·칼·방패·긴창이 있었으나 文記는 없었다. 귀신만을 섬긴다. 항상 백제에 복속되어 있었다. 용삭(龍朔) 원년 8월에 조공사가 당에 이르렀다(耽羅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廻竝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理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唐會要』 卷100 耽羅國條, 唐會要: 961 편찬, 唐代的 정치 경제를 집성한 백과사전적 문헌.]).

이 책에 의하면 (1) 탐라왕은 성(姓)이 유리(儒理)이고 명(名)은 도라(都羅)였다. (2) 섬에는 5개 부락들이 있었는데 성곽은 없었다. (3) 호구戶口는 8천명이었다. (4) 주민들은 방패, 긴 창 등의 무기류를 소지했는데 문자기록을 몰랐다. (5) 섬사람들은 귀신들을 섬길 줄 알았지, 아직 유교, 불교 등의 고급 종교를 몰랐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회요』가 작성되었을 961년 경 섬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위지동이전』의 주호(州胡) 시기의 인구를 추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알려진 고려 원종 15년(1274) 본도 인구 10,797명과 조선 단종 2년(1451) 본도인구 13,186명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섬의 인구가 3세기 후반(280년대) 대략 4천명, 백제 문주왕

2년경(476) 대략 4,800명, 『당회요』 작성시(961) 8,000명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런 인구수를 참조하면 이 사료의 호구는 고려시대처럼 여러 가족이 결합된 편호(編戶)가 아니라 단순히 인구 총수였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하여튼 필자는 10세기경 본도 인구는 대략 8천명이라고 추산한다.<sup>11)</sup>

8천명이란 현대 수준으로 보면 소수이지만 5~10세기를 전후한 당시는 一國 단위가 되기에 충분한 숫자였다. 『위지동이전』(280-289년간 저술됨)에 의하면, 약 3세기에 존재했던 한반도내의 변진한(弁辰韓)이라는 삼한은 총호수는 4~5만호가 되었다. 이 중에서 大國 인구가 5만명 정도였고, 小國이 15,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니 주호는 마한의 대국의 기준에서는 작았다. 그러나 변진의 소국이 3,500명 정도였으니, 주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앞의 계산에 의하면 『위지동이전』보다 약 200년 후인 백제 문주왕 2년경(476년) 탐라 인구는 대략 5,000명 정도가 되었다.<sup>12)</sup> 따라서 5세기 후반부터는 본도에는 하나의 정치단

11) 진영일,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계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pp.172-173.

12) 그러나 이런 산수는 아무런 역사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런 숫자가 기재된 『삼국지』 三韓의 總戶數라든가 ‘大國萬餘家’ ‘小國六七百家’ ‘小國數千家’ 등의 기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三韓은 三國 형성 전, 1-3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한반도에 소재했던 諸國을 의미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이다(이현혜, 『三韓社會形成科程研究』, 일조각, 1984, p.132). 이 시기에 馬韓은 50여 國으로 大國 萬餘家, 小國 數千家, 總戶數가 10여 만이고, 弁辰韓은 24개국으로 大國 4-5千家, 小國 6-7百家로서 총호수가 4-5萬戶 되었다 한다(『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馬韓: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弁辰韓: 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김정배 교수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삼한 78개국의 평균 인구수를 약 1만 명 정도로 계산했다(金貞培, 『韓國古代的 國家起原과 形成』, 고려대출판부, 1986, p.225). 그러나 이런 산술은 그리 믿을 것이 못 된다. 즉 마한 조에서 한 가족수를 5명으로 잡고 小國 數千家를 최소한 3千家로 생각하면, 그 인구수는 15,000명 정도가 되며, 거기에서 50개국을 곱하면 적어도 750,00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총호수 10여 만 호의 인구수는 500,000명밖에 안 되

위로서 소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인구가 있었다고 하겠다.

탐라국의 해외활동은 그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다. 탐라국은 백제뿐만 아니라 멀리 고구려까지 특산물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었다.

사신을 위(魏)나라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위나라 세종은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佛)을 동당(東堂)에서 불러보았다. 예실불이 임금 앞에 나아가 다음 같이 아뢰었다. 소국이 왕에게 정성을 다한 지 여러 대에 걸쳐 순수하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땅에 나는 토산품을 어김없이 왕에게 바쳤는데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가(珂)는 섭라의 소산입니다. 부여는 물길에게 쫓겨 나고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었습니다. 두 물품이 왕의 곳간에 올리지 못한 것은 실로 두 도적 때문입니다.([『三國史記』 文咨王 13년 夏4월, 504]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佛於東堂 悉佛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即涉羅所產 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여기서 우리는 6세기 초에 고대 탐라가 고구려 조정에 본도의 특산물인 「가(珂)」를 조공품으로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고구려는 재차 중국 위나라에 조공하고 있었다. 또한珂는 위에게 부여에서 산출되는 황금과 더불어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다.

이 사료의 배경은 것은 북만주에서 물길이 발흥하여 고구려를 압박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고구려 문자명왕(文咨明王) 13년

---

어 大國 小國의 '家'數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총호수가 잘못되었거나 한 것이다. 또한 弁辰韓 小國을 최소한 6百家(=3천명)로 잡으면, 24개국의 인구는 72,000명이 된다. 그런데 弁辰韓 총4-5만 호의 인구는 최대가 25,000명 정도가 되어 양자 사이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된다. 이것은 마한의 大國 萬餘家, 辰弁韓의 大國 4-5千家를 전혀 더하지 않는 숫자이다. 그리고 삼한은 大國이 萬餘家, 小國이 六七百家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양자 사이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따라서 이것을 평균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진 사료를 가지고 삼한 총호수를 78개국으로 나눠서 삼한 1국이 평균 1만 명이라는 계산은 통계상 별 의미가 없게 된다.

(504), 고구려왕은 예실불을 북위(北魏) 世宗에 보내어 방문하여 물길의 동향에 관해 북위의 의도를 타진하고 있었다.<sup>13)</sup> 그런데 노태돈은 섭라(涉羅)를 신라라 하여 조공국인 신라와 북부여가 각각 珒와 金을 북위에 조공물로 보내서 신하의 예를 취하였다 한다.<sup>14)</sup>

상술한 주장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상기 사료에서 「涉羅爲百濟所并」이라 하는데, 섭라가 신라라는 노태돈의 주장대로라면 이때 신라는 백제에 병합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양국의 역사적 상황과 어긋난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친선관계에 있었다. 신라 소지왕(昭知王)은 동왕 15년(493)에 이벌찬 비지(比智)의 딸을 백제 동성왕에 보내어 서로 결혼시킴으로써 결혼동맹을 맺었다. (2) 고구려 문자명왕 17년(495), 고구려군이 백제 치양성(雉壤城)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백제는 신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또 이를 얻고 있었다(동성왕 17년, 495).<sup>15)</sup>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신라는 백제에게 병합된 것이 아니라 백제하고 왕실간의 결혼까지 한 동맹국이었다. 나아가서 양국은 협동하여 고구려에 군사적 대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섭라는 신라가 아니었다. (3) 동성왕은 同王 20년(498), 탐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여 무진주까지 출정하여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탐라가 사죄하자 왕은 그만 두었다. 그리고 문자명왕 13년

13) 盧泰敦,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pp.313-345.

14) 앞 책, p.371, 주 30): 문자명왕 13년(503) 고구려 사신이 북위의 세종에게, 백제와 물길에 의해 고구려가 각각 涉羅와 부여에서부터 밀려나게 되어 그 지역의 특산물인 金과 珒를 토산품으로 공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涉羅는 신라로 여겨진다. 곧 이 기사를 통해 북부여와 신라가 그때까지 고구려에 金과 珒를 조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15年: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浪比智女歸之; 동성왕 17年: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504)이라는 시점 이전에 백제가 군대를 출정했거나 병합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에 병합되었다는 설라는 동성왕의 출정 대상인 탐라를 지칭한 것이며, 그리고 병합되었다고 서술된 것은 백제 중심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4) 설라가 고구려에게 공납한 「珂」란 내륙지방에 나는 玉<sup>16)</sup>같은 종류가 아니라 바다 산출인 소라나 전복 종류이었다. 이런 점들을 보아 여기서 설라는 신라가 아니라 탐라였다고 하겠다.

제주산물인 가(珂)가 위나라 사람에게 귀중하게 여겨진 것은 말 재갈로서 장식성 때문이었다.珂란 ① 옥이름(玉名), ② 소라 종류로서 바다에서 나며 큰 것을珂라 하며 검고 노란 색깔을 띠며 그 뼈는 회며 말을 장식한다(螺屬也 生海中 大者爲珂 黃黑色也 其骨白 可以飾馬), ③ 조개로 만든 말재갈의 장식, ④ 재갈(馬勒), ⑤ 흰 마노(白瑪瑙)를 말한다.<sup>17)</sup>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탐라 산출의珂란 소라나 전복 등의 종류로서 중국인에게 말 재갈 장식으로 귀중하게 쓰인 것 같다(②). 당대(唐代)에는 흔히 옥가(玉珂)라고 하여 아름다운 말 재갈 치장하는 옥조개를 의미했다. 그리고 당서(唐書) 거복지(車服志)에 의하면珂란 5품 이상의 官人이 사용하는 것이며, 말이 갈 때에 울린다. 이것을 옥가라 하여 당시(唐詩)에도 자주 등장한다<sup>18)</sup>. 따라서 당나라 고급관인들에게는 옥가란 자기들의 신분을 표시하는데 없어서 안될 귀중 장식품이었다. 원시한일 공통어를 연구한 金公七에 의하면 耽羅tiəm(na)과 涉羅

16)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바다출판사, 1999), p.304: 문자명왕 13년(504)에 북위에 보낸 국서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는 좋은 玉이 산출되는 涉羅지방을 백제에게 빼앗긴 것으로 되어 있다.

17) 諸槁徹次, 「大漢和辭典」7(東京: 大修館書店, 1979), 「珂」條, p.900.

18) 杜甫 詩句: 「乘馬鳴玉珂」; 平野彦次郎, 「唐詩選研究」(明德出版社, 1974), pp.154

tʃəm>ʃəm은 둘 다 섬을 뜻한다. 섬에는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하나는 taka 州胡>tak(na) 毛羅>tə(na) 屯羅>təm(na) 耽羅>tiəm(na) 儋羅>siəm(na) 涉羅tʃəm>ʃəm 계통이고 이는 원래 탐라어인데 후에 융합어가 되어서 고유어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taka 對海>təka(i) 竹島>度(島)多久>təna(i) 種(島), 多禰>təma 對馬/tama 玉(島)>tiəma 志麻>sima 思麻, 島 계통이다. 이들은 모두 「島」란 의미의 변형들이다 한다.<sup>19)</sup> 이 주장에 의하면 耽羅-儋羅-涉羅의 호칭의 변천은 덕-던-섬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과정을 겪었다(口蓋音化 내지 舌音化의 변화이다)<sup>20)</sup>. 곧 이들 단어들은 그 音形과 의미가 서로 같은 島·섬이었다. 결국 涉羅는 신라가 아닌 섬을 뜻하는 탐라를 가리킨 것이다.

탐라국은 당시 최대 문명국인 대당(大唐)과의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의 저명한 문장가 한유(韓愈, 762-824)는 다음과 같

19) 金公七, 「原始韓日共通語의 研究」(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6), p.190: 설라와 탐라의 연관성에 관하여 한일 고대언어를 연구한 김공칠은 다음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耽羅, 儋羅, 涉羅의 抽出의 뜻으로는 탐라어가 융합어>고유어화 되면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tʃəm>ʃəm의 抽出은 고대 일본어에서 志麻, 之麻, 思麻 등이 존재하는 점에서 고대 일본어에의 定着 과정에 상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곧 탐라어의 taka 州胡>tak(na) 毛羅>tə(na) 屯羅>təm(na) 耽羅>tiəm(na) 儋羅>siəm(na) 涉羅의 변천에 대하여 고대 일본어는 taka 對海>təka(i) 竹島>度(島)多久>təna(i) 種(島), 多禰>təma 對馬/tama 玉(島)>tiəma 志麻>sima 思麻, 島의 변천으로 상응시킬 수가 있다. 다만, 일본어의 경우 -ie음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탐라어→고대 일본어(→琉球語)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逆은 이들 형식의 변천 音理上 想定하기 어렵다. 琉球語의 경우는 파생 형식인 isikaki(石垣島), taketomi(竹富島) 다수 보인다.

20) 金公七, 「耽羅語 研究: 濟州方言의 源流」, pp.252-253. 耽·涉·儋의 3음이 모두 刺(섭)과 相類라고 한 것이 참조된다. 涉은 禪母이며 葉3등운으로 諛/諛(섬, 현대어 섬)에 가까운 음이다. 구개음화 내지 설음화의 변화를 거치고 있는데 다만 韻尾만은 같은 唇音의 m : p의 차이는 있다. … 州(胡)-毛(羅)-耽(羅)-儋(羅)-涉(羅)의 호칭 변천은 덕-던-점-섬으로 자연스러운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다만 毛羅·耽羅의 음형과 현대어의 섬과 거리가 있지 않나 하겠지만, 그것은 문헌에 國名으로 굳어버린 것과 口語로 전승된 것의 차이뿐이다.

이 이런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탐부라(耽浮羅)·유구(流求)·모인(毛人)·이단(夷亶)과 같은 해외 잡국(雜國)이나 임읍(林邑)·부남(扶南)·진랍(眞臘)·우타리(于陀利)와 같은 족속들이 동남쪽 아득한 천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들 수만 명이 바람과 물때를 보아가며 적당한 때 와서 조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야만 족속들은 해상에서 교역도 합니다. … 외국 재화가 날마다 이르러, 주옥(珠玉)·상서(象犀)·대모(玳瑁)와 같은 진기한 물건들이 중국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其海外雜國 若耽浮羅流求毛人夷亶之州 林邑扶南眞臘于陀利之屬 東南際天地 以萬數或時侯風潮朝貢 蠻胡賈人舶交海中 … 外國之貨 日至 珠香象犀玳瑁奇物溢於中國[『文淵閣 四庫全書』 集部 322, 제1383冊, 韓愈 昌黎文 送鄭尚書序]).

여기서 한유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탐부라(耽浮羅, 21)[耽羅]를 해외 잡국(雜國) 중에서 수위(首位)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잡국 상인들은 우연하게 한 둘 중국에 들른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때를 헤아려 왔으며, 그 수가 수만이나 되고, 그리고 진기한 주옥, 상서 등의 상품을 대량으로 싣고 와서 중국을 차고 넘치게 하였다 한다. 이런 한유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8-9세기경 탐라는 중

21) 김용선, 『고려금석문 연구』(일조각, 2004), pp.251-255, 所收 金大鉉墓誌銘: 그의 아들 金須는 원종 10년(1269) 제주도에 파견되었다가 삼별초 반란(1270-1273)을 만나 전사하였다. 이 墓誌銘에 「府君而靈光郡守 押兵戍耽浮羅至」라는 구절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탐라가 耽浮羅라고도 불려지고 있었다. 앞서 金公七이 밝혔듯 耽浮羅도 魏書의 涉羅, 隋書의 聘牟羅, 唐書의 儋羅 또는 耽浮羅처럼 毛羅와 한 가지로 섬을 뜻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대 중국어에서도 耽浮羅(뎬푸루오)와 耽牟羅(뎬머홀로)는 서로 音形이 거의 같다. 고대 탐라에 대한 여러 명칭들은 史書 편찬자들이 고대 탐라를 자기들 식으로 적당한 용어를 선택해서 부른 결과인 것 같다. 따라서 이 명칭들의 개개에 천착하고 語義를 찾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될 것 같다.

국과 교역하는 잡국(雜國) 중에 첫째가는 나라였을 정도로 해외 상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탐라는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는 물론 중국까지 무역하려 왕래한 결과로 동아시아에서 그 국제적 위치가 신라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신라 건축물인 황룡사(皇龍寺) 구층탑(九層塔)의 상징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해동 명현(名賢) 안홍(安弘)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라 제27대 여왕[善德大王]이 國主가 되었다. 여왕은 비록 道가 있었으나 위엄이 없었다. 그래서 용궁(龍宮) 남쪽에 황룡사(皇龍寺) 구층탑(九層塔)을 세워서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였다. 각각 제1층 日本, 제2층 中華(중화), 제3층 오월(吳越), 제4층 탁라(托羅), 제5층 응유(鷹遊), 제6층 말갈(靺鞨), 제7층 단국(丹國), 제8층 여적(女狄), 제9층 예맥(濊貊)이었다([『三國遺事』 卷 3, 皇龍寺 九層塔條]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 皇龍寺建 九層塔 卽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

여기서 신라 27대 선덕왕(632-647)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워서 인근 9국을 불력(佛力)에 의해 제압하려 하였다. 7세기 중반 탐라국은 「탁라(托羅)」라 하여 신라 인근 민족들 중에 일본, 중국, 오월에 이어 제4위의 서열을 차지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국이 탐라를 매우 중요한 인근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연 당시 탐라가 주위의 나라에 이렇게 국제적 중요성을 가졌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사료에 그렇다고 나오니 우리는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는

적어도 3세기 후반 주호(州胡) 시대부터 해상활동을 통하여 주위 나라와 활발한 교역 관계를 맺어왔기에 이런 신라국의 평가가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자료가 선덕왕 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노명호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고려 태조가 30세 되던 해에 바다 가운데 솟아 있는 9층 금탑(金塔)에 오른 꿈을 꾸었다거나, 궁에 말년에 고경(古鏡) 참문(讖文)이 발견되었다는 고려의 건국을 합리화하는 설화에서도 천하와 관련된 관념을 볼 수 있다. 9층탑이 상징하는 지역 범위에는 최웅(崔凝) 열전(列傳)에서 보듯이 三國 또는 그 후신을 의미하는 「삼한(三韓)」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도참서(圖讖書)인 『동도성립기』에 보이는 9층탑이 상징하는 지역은 9한(韓) 또는 일본·중국·오월·탁라·옹유(鷹遊)·말갈·거란·여적(女狄)·예맥 등을 포괄하는 거의 동아시아의 전체 범위이다. 물론 『동도성립기』는 일연(一然) 당시에 알려진 것처럼 신라의 진평왕(579-632)~선덕왕(632-647) 시대의 승려인 안弘의 저술이 아닐 것이다. 9개 지역 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빠지고 대체로 고려전기의 주변 지역들을 포함한 것이라든지, 「東都」라는 지명으로 보아 고려전기, 탐라가 고려군현으로 편제되기 전에 만들어진 위서(僞書)의 하나인 도참서로 보인다. 그런데 위서라도 위서 작자들의 관념은 반영되는 것이니, 이는 고려전기의 고려가 중심이 되는 천하의 범위와 관련되는 9층탑이 상징하는 지역 범위가 때로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2)</sup>

상술한 주장에 의하면 황룡사 9층탑의 9국은 선덕왕대 신라의 주변

22) 盧明鎬, 「高麗時代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韓國史研究會, 1999), p.10.

국에 관한 인식이 아니라 후대인 고려전기의 국제인식이었다. 이런 견해를 따른다면 9층탑의 상징인 9국은 고려 태조대(918-943) 고려의 해외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여하튼 상기 사료를 통해서 우리는 탐라가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왕조 초인 9-10세기경에 상당한 국제적 위치를 가진 나라로 신라국으로부터 평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에 탐라는 신라를 대신하여 한반도 지배권력이 된 고려왕조에 조공하여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탐라의 고려에 관한 대외관계를 본고의 편역상 태조(918-943)~문종대(1046-1083)에 한하여 『고려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태조 21-12, 938] 탐라국태자(耽羅國太子) 말로(末老)가 내조하자 星主王子 작위(爵位)를 내렸다(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 ② [현종 15-7, 1024] 탐라추장(耽羅酋長) 주물(周物)과 아들 고물(高沒)을 나란히 둘 다 운휘장군상호군(雲麾大將軍上護軍)으로 삼았다(以耽羅酋長周物子高沒 竝爲雲麾大將軍上護軍).
- ③ [현종 20-6, 1027] 탐라세자 고오노(孤烏弩)가 來朝하자 유격장군(游擊將軍)을 수여하였다(耽羅世子孤烏弩來朝 授游擊將軍).
- ④ [정종 9-12, 1043] 탁라성주(托羅星主) 유격장군 가리(加利)가 아뢰기를 “근래에 왕자 두라(豆羅)가 죽었다. 하루라도 후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호잉(號仍)을 왕자로 삼아서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아울러 方物을 바쳤다(托羅星主游擊將軍加利奏 王子豆羅近因卒 一日不可無嗣 請以號仍爲王子 仍獻方物).
- ⑤ [문종 7-2, 1053] 탐라국왕자 수운나(殊雲那)가 그 아들 배용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 왕은 왕자를 증호장군(中虎將軍)에 임명하였다(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 來獻 … 王授王子中虎將軍).
- ⑥ [문종 9-2, 1055] 송상(宋商) 엽덕총(葉德寵) 등 87인을 오빈관(娛賓

- 館)에서 ... 탐라국 수령(首領) 고한(高漢) 등 158인을 조종관(朝宗館)에서 한식(寒食) 명절 음식으로써 접대하였다(寒食饗宋商業德寵等八十七人於娛賓館 ...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 ⑦ [문종 16-2, 1062] 탐라 고협(高叶)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 [문종 16-2, 1062] 10월 기묘일에 탐라성주 고일(高逸)이 내조하여 方物을 바쳤다(耽羅高叶等 來獻土物. ... 冬十月 己卯 耽羅星主高逸 來獻方物).
- ⑧ [문종 17-3, 1063] 탐라 신성주(新星主) 두량(豆良)이 내조하였기에 명위장군(明威將軍)을 수여하였다(耽羅新星主豆良來朝 特授明威將軍).
- ⑨ [문종 22-3, 1068] 탐라성주 유격장군 가야잉(加也仍)이 내조해서 土物을 바쳤다(耽羅星主游擊將軍加也仍 來獻土物).

\* 출처: 『高麗史』世家.

\* 태조 21-12, 938 略號: 태조 21년 12월, 西紀 938년.

①에서 탐라국 태자 말로(末老)는 고려에 조공해서 星主·王子라는 관작(官爵)을 받고 있었다. 이는 고려시기에 탐라국의 지배층이 성주 또는 왕자라 호칭되게 된 시초이다. 이 관작이 ② 현종 15년, 운휘대장군, ③ 현종 20년, 유격장군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④ 성주 유격장군이 왕자 두라의 서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바라면서 공물을 바쳤다 한다. ⑤-⑨는 문종대에 탐라국 왕자 수운나, 탐라국 수령 고한, 탐라 고협, 신성주 두량 등이 내조하여 증호장군이라든 명위장군이란 관작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료들이다.

상기 기사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된다. (1) 성주·왕자의 출현은 고려시대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이런 호칭은 없었다. (2) 탐라 수장층은 주물, 두라, 수운나 등이라는 여진식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런 명칭은 고려의 女眞에 대한 기미책(羈縻策)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기미책이 탐라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명칭이 탐라 성주 왕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3) 탐라 성주 왕자들은 운휘장군, 유격장군, 중호장군 등의 고려 무산계(武散階) 관작(官爵)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탐라 지배층이 고려 조정의 권위 속에 포섭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또한 이는 전시대에 외국에 대해 조공 외교를 펼치면서 그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대외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4) 소위 제주 高氏의 시조라 할 고헌(高軒), 고일(高逸), 고복(高福) 등이 문종대에 등장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미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다른 논고들<sup>23)</sup>에서 지적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 안하겠다. 하여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탐라가 한 국가로서 주변 국가들과 조공외교를 통해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다가 조선왕조 태종 4년(1404) 본도에 좌우도지관(左右都知管)이 설치되어 屋主制가 폐지되자 그 존재를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sup>24)</sup>

### Ⅲ. 고대탐라와 일본

탐라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 국교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다음같이 전해진다.

23) 진영일, 「고려 숙종 10년 '耽羅郡' 설치 고찰」, 『耽羅文化』 2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 『인문학연구』 10(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고려조 탐라파견 외관 고찰」, 『耽羅文化』 24(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4) 『朝鮮王朝實錄』太宗 4년 夏4월 辛卯: 改濟州土官號 以東道千戶爲東道靜海鎮 西道千戶所爲西道靜海鎮 都千戶爲都司守 上千戶爲上司守 副千戶爲副司守 道之官爲道州官 以屋主爲道州官左道知管 王子爲道州官右都知管.



- ① [齊明 7년 5월, 661]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阿波伎)를 보내서 공헌하였다(耽羅始遣王子阿波伎貢獻).
- ② [天智 4년 8월, 665] 탐라가 사신을 보내 조정에 왔다(耽羅遣使來朝).
- ③ [天智 5년 正月, 666] 탐라가 왕자 고여 등을 보내어 공헌하였다(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 ④ [天智 6년 7월, 667] 탐라가 좌평 연마 등을 보내어 공헌하였다(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 ⑤ [天智 6년 閏11월, 668] 윤(閏) 11월 비단 14필·힐纈, 무늬 얽힌 옷감] 19필·곤포(紺布, 곤색 옷감) 24단·도염포(桃染布, 복숭아 색채 옷감) 58단·도끼 26·자귀 64·칼 62매를 연마 등에게 내려주었다(閏十一月 以錦十四匹 纈十九匹 紺布廿四疋 紺布廿四疋 桃染布五十八端 斧廿六 鈿六十四 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 ⑥ [天智 8년 3월, 669] 탐라는 왕자 구마기(久麻伎) 등을 보내서 공헌하였다. … 탐라왕에게 5곡 종자를 주었다. 이날 구마기 등은 돌아갔다(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 賜耽羅王五穀種 是日久麻伎等罷歸).
- ⑦ [天武 2년 閏6월, 672] 탐라는 왕자 구마예(久麻藝)·도라(都羅)·우마(宇麻)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耽羅遣王子久麻藝 都羅 宇麻等朝貢) … 그리고 대재(大宰)에 명하여 탐라사절에 다음처럼 조서를 내렸다. 천황이 새로이 천하를 평정하여 처음 즉위하였다. 이로 인해 축하사절 이외에는 부르지 않았다. 이는 너희들이 친히 본 바이다. 또 시절이 춥고 파도가 험하니 오히려 너희들의 근심이 된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가거라. 그리고 탐라국왕과 사신 구마예 등에게 비로소 작위를 내렸다. 그 작위는 大乙上이고, 다시 금수로 관(冠)을 장식하였다. 그 나라의 좌평의 官位에 해당하였다"이라 하였다. 그들은 축하에서 돌아갔다(天武 2년 8월, 672)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即位 由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又時寒浪險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九馬藝等鑿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筑紫返之).
- ⑧ [天武 4년 8월, 675] 탐라조사(耽羅調使) 왕자 구마기(久麻伎)가 축

- 자(筑紫)에 머물었다(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 [天武 4년 9월, 675] 탐라왕 고여가 난파에 도착하였다(耽羅王姑如到難波).
- ⑨ [天武 5년 2월, 676] 탐라객(耽羅客)에게 배 한 척을 주었다(耽羅客賜船一艘) … [天武 5년 7월, 676] 탐라객이 귀국하였다(耽羅客歸國).
- ⑩ [天武 6년 8월, 677] 탐라가 왕자 도라(都羅)를 보내서 조공하였다(耽羅遣王子都羅朝貢).
- ⑪ 탐라인이 서울로 향하였다([天武 7년 정월, 678] 耽羅人向京).
- ⑫ [天武 8년 9월, 679] 고려(고구려)와 탐라가 사신들을 보내어왔다. 이들은 돌아와 함께 조정에 배례하였다(遣高麗使人 遣耽羅使人等 返之共拜朝廷).
- ⑬ [天武 13년 10월, 684] 이날 현견양련수강(縣犬養連手纒)을 大使, 천원련가니(川原連加尼)를 小事로 삼아 탐라에 파견하였다(是日縣犬養連手纒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 ⑭ ([天武 14년 8월, 685] 탐라사신 등을 돌려보냈다(遣耽羅使人等還之)).
- ⑮ [持統 2년 8월, 688] 탐라왕은 좌평 가라(加羅)를 보내서 방물을 바치게 했다(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 [持統 2년 9월, 688] 탐라 좌평(佐平) 가라(加羅) 등을 축자관(筑紫館)에서 향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 ⑯ [持統 7년 11월, 693] 탐라왕자 좌평(佐平) 등에게 각각 차이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賜耽羅王子佐平等各有差).

\* 上記 史料: 『日本書紀』에 의함.

사료 ①~⑯에서 탐라국은 각각 제명(齊明, 665-661) 1회, 천지(天智, 661-672) 5회, 천무(天武, 672-686) 11회, 지통(持統, 686-696) 3회, 도합 30회에 걸쳐 일본 천황(天皇)에게 외교사절을 보냈다. 이 중 사자가 제일 많이 파견된 것은 천무(672-686) 연간이며 그 횟수는 11

회에 달했다.

탐라사지는 탐라왕 고여(姑如, 천무 4년 9월, 675)를 제외하고는王子들과 佐平 관작을 띤 자가 많고 있었다.王子로서는 아파기(阿波伎, ① 제명 7년 5월, 661), 고여(姑如, ③ 천지 5년 正月, 666), 구마기(久麻伎, ⑥ 천지 8년 3월, 669), 구마예(久麻藝, ⑦ 천무 2년 윤6월, 672), 도라(都羅, ⑦ 천무 2년 윤6월, 672; 천무 6년 8월 재차 파견, 677), 우마(宇麻, ⑦ 천무 2년 윤6월, 672) 등이 있었다. 좌평 직함의 사절은 연마(椽磨, ④ 천지 6년 7월, 667), 가라(加羅, ⑮ 지통 2년 9월, 688) 2명이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들은 주로 탐라왕의 차위(次位)인王子들이 답했다. 그리고 왕자는 한 시기에 한 명만이 아니라 ⑦「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이라 하듯이 다수가 존재하였다. 여기서 도라·우마를 왕자 구마예와 기타 다른 작명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⑩「王子都羅」라 하고 있으므로 도라나 우마도 왕자들이었다.

그리고 좌평이란 백제 최고관등을 소지한 사신들이 2명 보인다. 그러나 백제는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서울 사비성이 함락되어 망하고 말았다. 그 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나 그것마저도 그 거점인 주류성(周留城, 현재 韓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는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평 관호(官號)를 가진 인물들이 백제 멸망 이전에 탐라국 내부에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제가 붕괴하기 전에 자기들의 수상(首相) 관직인 좌평을 조공국 탐라국에 허락했을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라사신의 좌평 관직 소지는 백제가 망한 후에 그 후광을 빌어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칭되었던 것이 같다. 필자는 이런 사정을 본고 1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즉 상기 자료들에 나타나는 의미는 필자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탐라 지배 엘리트는 기원전 후부터 해외무역을 통해 재부를 집중하고, 그것 위에 사회 통제기구, 곧 탐라국이란 정치체(政治體)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공 대상이던 백제가 멸망하자 이에 대응할만한 조공과 무역의 대상국으로 일본을 주목하여 사신들을 파견하여 외교를 수립하려 하였다. 이것이 상기 자료들에 보이는 탐라사신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탐라가 일본에 조공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동맹뿐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된다. 이는 고대무역은 정치적 동맹에 부수적인 현상이었지만, 때로는 선진문물 습득이란 무역활동이 정치적 면을 능가할 수도 있었다고 하겠다. 그 사례로서 탐라국은 일본에 조공한 대가로서 고급직물, 농기구, 오곡종자를 얻고 있었다. 즉 ⑤ 탐라사 좌평 연마는 일본으로부터 금(錦[비단]) 14필, 흰(纈[무늬 없혀 있는 옷감]) 19필, 비(緋[붉은 비단]) 24필, 곤포(紺布[감색 베]) 24단, 도염포(桃染布[복숭아 색깔 베]) 58단, 도끼 26, 삼(衫[자귀]) 64, 刀子[칼] 62매를 입수하였다. ⑥ 탐라왕좌 구마기 등은 「오곡종(五穀種)」을 받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탐라사신들은 일본에 조공을 매개하여 일본의 문물을 도입하고 있었다.

여기서 탐라사자의 이름들 중에 주목할 만 점이 있다. 곧 王子 구마예(久麻藝)(⑦)와 王子 구마기(久麻伎)(⑧)이다. 이 둘은 「久麻」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성씨(姓氏)라고 생각할 수 있고, 「藝」와 「伎」는 개인을 표시하는 이름들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추측에서 「久麻」는 우리나라 일본에서 똑같이 「구마」나 「고마」로 읽히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곰이었다. 고대에는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天 또는 神을 의미하기도 했다<sup>25)</sup>. 일부 탐라 왕자들은 자신들을 「구마」라 부르며 神처럼 신성 족속의 후예임을 내외에 과시한 것 같다.

필자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7세기경 일부 탐라 왕자들이 스스로 「久麻」라 자칭한 것은 당시 탐라국에는 막연한 씨족 개념을 가진 공동집단에서 혈통 중심의 리니지라는 가계(家系)가 분화되어 있었음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는 「구마」 집단이 집단자원에서 분배를 공유하는 모든 성원을 포괄하는 단위로서 정의되는 氏族(clan)부터 석출(析出)되었고, 씨족과 대비되는 단선가계(單線家系, lineage)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리니지는 구조적 세부에서 씨족과 유사하나 구성원을 확인하는 수단들에서 다르다. 리니지는 (1) 배타적인 성격이어서 他人의 유입을 거부하며, (2) 집단자원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부분적 또는 제한적 접근을 제공하며, (3) 시조(始祖)와 사회구성원의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여 구성원의 신분을 시조로부터 거리에 의해 설정한다. 그 구성원의 사회특권은 年長이란 원칙에 의해 長子에 의해 계승된다<sup>26)</sup>. 이런 리니지 개념에 의하면 「구마」 집단의 존재는 당시 탐라사회에 이미 생산자원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특권을 특정한 家系의 長子에게 상속시키는 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리니지의 존재는 666년 일본에 파견된 王子 姑如(③)가 11년후인 675년 「耽羅王」(⑧)으로서 다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고여는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되었다. 특정한 리니지[家系集團]이 존재하며, 그것 내부에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7세기경 탐라가 공동체적인 자원소유라든지 씨족적 구성이 아니라 왕위 상속이 가능한 분화된 리니지[家系]를 중심으로 한 선진 사회구성

25) A.P.OKLANDNIKOV, 「신석기시대 東시베리아 종족의 곰 숭배사상」(김정배,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p.250에 번역 수록됨).

26) Morton Fried,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Random House Inc., 1967), pp.124-127.

의 선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탐라국은 이렇게 661-688년간 『일본서기』의 기록만으로도 30회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었다. 가케이 도시오(筧敏生, 이후 「가케이」로 약칭)는 이런 빈번한 탐라국 사절의 일본행이 탐라지배층의 자체 취약점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백제의 질서에 의존하고 백제에 의한 왕위의 보호에 의해서만 결집할 수 있었던 탐라 지배층은 백제가 망하자 일본 사절을 파견하여 백제 대신에 일본에 기대어서 나라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한다.<sup>27)</sup> 이런 가케이의 논조는 백제 멸망 이후 탐라국이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제국(帝國)」과 정치적 동맹에 의해 그 비호를 받음으로써 그 명맥을 보존하려고 일방적으로 사자들을 빈번하게 파견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상술한 가케이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를 규정했던 조공제도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유교적 세계질서(Confucian world order)」<sup>28)</sup>라 할 수 있는 책봉과 조공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탐라와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맺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탐라가 일본에 「공헌(貢獻)」(① ③ ④)과 「조공(朝貢)」(⑦ ⑩)하고 있으며 그때 方物[탐라 토산품]을 바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조공제도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 조공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되겠다. 이를 본고 4장에서 부연

27) 가케이 도시오(筧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耽羅文化』 10(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p.266.

28) Edwin. O. Reischauer ·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p.317.

설명하겠다.

7세기 이후, 탐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면, 탐라는 『일본서기』 이외에도 『속일본기(續日本記)』, 『영해집(令集解)』, 『연희식(延喜式)』에 단편적으로 나온다.

- ① 아악료잡악(雅樂寮雜樂) 학생 인원을 정하였다. 대당악(大唐樂) 29인, 백제악(百濟樂) 26인, 고려악(高麗樂[高句麗樂]) 8인, 신라악(新羅樂) 4인, 그리고 도라악(度羅樂) 62인, 제현무(諸縣舞) 8인, 축자무(筑紫舞) 20인이었다. 그 대당학생은 중국어를 말하지 못하니 夏[中國: 唐]蕃에서 교습에 감당할만 자를 취하여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신라 등의 학생은 각 해당 번에서 교습할만 자들을 취하라. 단 도라악, 제현, 축자무 학생은 모두 악호(樂戶)에서 취하라(『續日本記』 聖武天皇 3년 7월, 731) 定雅樂寮雜樂生員 大唐樂 二十九人 百濟樂 二十六人 高麗樂 八人 新羅樂 四人 度羅樂 六十二人 諸縣舞 八人 筑紫舞 二十人 其大唐樂生不言夏蕃取堪教習者 百濟高麗新羅等樂生並取當蕃堪學者 但度羅樂 諸縣 筑紫舞生並取樂戶).
- ②-A (천평 10년 21일 서울로 향함) 탐라인 21인에게 4일식으로 벼 33속 6과, 술 6두 7승 2합, 소금 1승 6합 8작을 주었다. 부령사(部領使) 장문국풍포군의대령정팔위하액전부직광마려(長門國豐浦郡擬大領正八位下額田部直廣麻呂), 장종(將從) 1인, 도합 2인 왕래 8일, 식도(食稻) 5속 6과, 술 8승, 소금 3합 2작(『令集解』, 天平十年 周防國正稅帳] 天平十年二十一日 向京 耽羅島人二十一人 四日食 稻33束 6把 酒六斗七升二合 鹽一升六合八勺 部領使 長門國豐浦郡擬大領正八位下額田部直廣麻呂 將從 一人 合二人 往來八日 食稻五束六把 酒八升 鹽三合二勺; 『令集解』: 9세기 후반 편찬 법전; 天平 10年: 738).
- ②-B 탐라방포(耽羅方脯)의 4구의 값은 나락 60속이다 [1구별 5속](天平十年 周防國正稅帳] 耽羅方脯肆具價稻陸拾束 [具別五束]).

- ③ 비후국담라복(肥後國耽羅夔) 39근 · 풍후국담라복(豊後國耽羅夔) 18근(『延喜式』主計上, 調, 延喜 5年 편찬, 905) 肥後國耽羅夔卅九斤 豊後國耽羅夔十八斤).

사료 ①에서 백제악 · 고려악[고구려악] · 신라악과 더불어 도라악이 아악료잡생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도라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기원이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 데이비드 워터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29)</sup> 첫째로, 일본학자들 간에는 탐라가 나라(奈良) 시대에 「度羅」(Tora or Dora)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이것이 도라악으로 알려진 음악과 춤에 그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로, 사에키 아리요샤는 도라가 중앙아시아의 서쪽, 토키리인이 세운 도시국가의 고대 수도인 투카라(土火羅)의 이름에서 전파된 것이라 한다. 세 번째로, 도라가 중국의 도로(都盧, 들루)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 도로는 서한(西漢) 시대와 후대의 사료들 속에서 봉건 영주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도로가 일본어 발음으로 도로(Tora)이기에 도라로 와전됐으리라 생각된다. 네 번째로, 기시베 시게오의 주장인데, 이것은 바로 도라가 九州의 남쪽에 놓여있는 열도(列島)들 가운데 하나로서 7개의 토카라(土噶羅) 섬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워터하우스는 이런 도라에 대한 설명들을 종합하여 제주도설을 기울고 있으나 명확하게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sup>30)</sup>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도라악의 제주도 기원설에 회의적이다.

29) David Waterhouse, "Where did Toragaku come from?", *Musica Asiatica*, vol. 6(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73-93. 이 논문은 현행 복에 의해 번역되었다(「도라악度羅樂은 어디에서 왔는가」, 『韓國音樂史學報』 제17집(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2), pp.163-193). 본고의 인용 페이지는 이 번역본에 의한 것이다.

30) 앞 논문, pp.166-173.



사료 ① 대당악·백제악·고려악·신라악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 그들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는 국가별 출신집단인 번(蕃)에 할당되어 교습되고 있다. 그러나 도라악·계현·축자무의 학생은 이런 언어 문제와는 하등 관계없이 국내 직능집단들의 하나인 「악호(樂戶)」에서 충원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도라악의 교습 학생들은 외국어인 중국·백제·고구려 언어를 알아야 각각 국가들의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전제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보아도 도라악은 외국 음악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어떤 특수한 음악, 예를 들면 「どら」(銅羅, 징)을 집단적으로 두드리는 현재 농악대와 같은 가무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도라악 학생은 62명으로 대당악 29인, 백제악 26인, 고려악 8인, 신라악 4인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편이다. 이런 점들에서 도라악이 외국 음악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행해지는 전통음악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아악료 학생 정원이 정해진 해(731)부터 21년 지나서 752년(孝謙 4)에 東大寺大佛 개안식(開眼式)이란 일대 행사가 벌어진다. 이 식전(式典)에는 음악이 주가 되어서 진행되는데 우선 악무(樂舞)가 등장한다. 이것은 아악료(雅樂寮)의 오오우다(大歌)부터 시작하는데 우타이메(歌女)와 무인(舞人)이 합쳐 30인이었다. 그 다음 귀족들에 의한 가무(歌舞)가 피로(披露)되었고, 그리고 당 長安·낙양(洛陽) 등에서 정월 15일 원소관등(元霄觀燈) 때에 행해지는 봄 춤이 시작되었다. 이 개안식에서는 小女 120명이 춤을 추었다. 이어서 당의 왕실 음악인 고악(古樂)·중악(中樂)에 옮겨지고, 이윽고 민간에 유행하는 산악(散樂)으로 변한다. 고마가쿠(高麗樂)도 3번이나 무인(舞人)을 무대에 내보내고, 그리고 흔히 듣지 못하는 임읍악(林邑樂)을 보제(菩提)·도선(道璿)들과 함께 도일(渡日)한 임읍승(林邑僧) 불철(不哲)이 피로하였다.

이는 지금의 베트남·캄보디아 지역의 음악이었다.<sup>31)</sup> 여기서 아악료 정원규정과 개안식은 2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양자 사이에 일치되는 음악은 대당악과 고려악 둘뿐이다. 나머지 신라악, 도라악, 제현무, 축자무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규정이 유명무실하여 지켜지지 않았거나 후에 민간 음악인 산악(散樂)이라든지 아악료 가녀·무인 30인으로 축소되어 통합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도라악 62인의 정체와 행방은 묘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당시 백제·고구려·신라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외국어와 같아서 통역이 필요했는가는 알 수가 없다. 平安時代인 905년에 편찬된 『연희식(延喜式)』(승의 시행세칙 집대성)에 의하면 일본조정은 자기들을 방문하는 신라사신 수행원 중에 발해(渤海 [고구려]) 통사(通事)[통역자]·백제통사(百濟通事)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멸망한 고구려·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에 번(蕃) 별로 거주하고 있어서 신라사신에게 이들의 말을 아는 자들을 대동하여 올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면 일본 거주하는 백제·고구려 계통의 주민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통역사(通事)를 필요했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일본조정은 일본에 거주하는 신라·고구려·백제의 제번(諸蕃)의 民事 처리를 위해 그들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통사를 신라사에게 요구했던 것이다.<sup>32)</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삼국의 언어가 각각 틀리고 탐라도의 언어도 역시 주위 나라들과 달랐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언어일 수도 있는 도라악 연습생을 국내

31) 青木和夫, 『日本の歴史』 3(奈良の都), (中央公論社, 2004), pp.398-399. 東大寺大佛 開眼式은 752년(天平勝寶 4) 4월 9일 聖武·光明·孝謙의 3자가 大佛 앞에 坐定하고, 그 배후에는 5位 이상의 百官이 禮服을 입고 頂禮해서 거행된 거국적 대 행사였다(同書, 397).

32) 遠山美都男, 『白村江』(講談社現代新書 1379, 1997), pp.170-172.

악호에게 배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필자는 도라악이 고대탐라에 기원한 음악이라는 주장에 부정적이다.

②-A, 天平(738) 10년 10월 21일 탐라인 21명이 일본에 「來日」하여 주방국(周防國)을 통과해서 「向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탐라방포(耽羅方脯, 얇게 저미어 말린 고기) 4具의 가격이 나락(稻) 60 속(束, 묶음)이었다. ③에 「비후국(肥厚國) 탐라복(耽羅鰓) 39 근(斤)」, 「풍후국(豊厚國) 18斤」이라 하여 탐라의 명칭을 붙인 복(鰓[전복])이 나온다.

상기 기사에 관하여 모리는 탐라도인이 向京을 위해 주방국을 통과하였고, 그때 주방국에서는 그들로부터 탐라방포를 구입했다. 그리고 탐라방포는 정세장(正稅帳)의 지출항목에서 보면, 교역물의 하나로서 취급되었고 아마도 제국(諸國) 공헌물 또는 토산물로서 중앙에 貢上된 것으로 보았다.<sup>33)</sup>

또한 모리는 일본과 탐라는 8세기에 공식통교가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②의 탐라도인 21인은 외교사절이 아니라 표착인들이었다고 한다<sup>34)</sup>. 필자는 이들은 표착인이긴 하였으며 탐라 상인들이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사(國使)에 준하는 대우를 다음 같이 받고 있었다. (1) 그들은 일본조정에 의해 국도(國都) 평성경(平城京)에 호송될 정도로 국가사신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었다. 다시 말해 주방국은 탐라인들에게 국사(國司), 관인급(官人級) 정도는 아니지만 史生, 번상(蕃上) 정도의 식료공급<sup>35)</sup> 하고 있었다. (2) ③-B에서 탐라인들을 국도까지 호송하는 부령사 1인, 장종 2인에 대한 식료지급 규정이 동시에 보이는

33) 森 公章, 「耽羅方脯考: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濟州考古美術研究會調査資料 1輯: 濟州考古資料』(제주고미술연구회, 1993, 회원용 비매품), p.827. 본고의 쪽 수는 원논문이 아니라 상기 濟州考古資料에 의거한다.

34) 앞 논문, p.821과 p.826.

35) 앞 논문, p.825.

것으로 보아 단순한 표류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단순 표류인들은 국도에 호송되지 않고 있었다.<sup>36)</sup> (3) 탐라인이 우연 표류인이었다면 표류기간 중에 식량이 극도로 궁핍했을 터인데 포(脯)<sup>37)</sup>같은 식품을 어떻게 먹어버리지 않고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장기간 배에 싣고 다녔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도 21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탐라포를 상품으로 싣고 항해하던 중 일본에 거의 다가와서 폭풍을 만나 표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일반어민들이었다면 어쩌서 고급상품인 포를 싣고 고기잡이를 하였을까 의심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탐라인 21명은 단순한 해상 난파 표류자들이 아니라 탐라국 민간상인이었는지 양국이 국교가 단절된 후에 탐라국 사절 준하는 사명을 띤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일본조정은 이들을 후대하여 관급식량을 제공하고, 부령사로 하여금 평성경까지 호송했던 것이다.

모리는 ③ 「肥後國耽羅鮓 39斤 豊後國耽羅鮓 18斤(『延喜式』: 延喜5年, 905)」 등의 「탐라복(耽羅鮓)」(탐라 전복)이 탐라 산지(產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를 뜻한다고 했다.<sup>38)</sup> 즉 비후국·풍후국이 산출하는 탐라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풍후국과 비후국이 일본에서 본도와 제일 근접한 구주(九州)의 동서 지역이므로 이들 지방인들이 탐라상인과 교역해서 얻은 상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확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기에 이 이상 무엇이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10세기 초에 탐라와 신라는 상호 폐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교

36) 앞 논문, p.824.

37) 앞 논문, p.826. 『和名抄』 「鹿脯 說文云脯 乾肉也 禮記云 牛脩鹿脯 脩亦脯也」.

38) 森 公章, 「耽羅方脯考: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p.827.

역하고 있었음이 일본 한 사료에 보인다. 신라 배가 탐라도(耽羅鳴)에 와서 해조류(海藻類)를 채집하여 육지로 실어 나르는 등의 교역을 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기록이다.

지난 정월 13일 신라 선박이 탐라도(耽羅鳴: 貪羅鳴)에서 해조를 교역해 오다가 대마도 하군현(對馬島 下縣郡)에 표착(漂着)하였다. 도수(嶋守) 경국(坂上經國)이 선원들을 위안하여 평안케 하고 또한 식량도 공급하여 주었다. 아울러 의통사(擬通事) 잠모망통(長岑望通)과 검비위사(檢非違使) 진자경(秦滋景)을 파견하여 이들을 후백제 서울인全州로 돌려보냈다. 3월 25일 진자경이 홀로 돌아와 아뢰어 이르기를 “全州王 견훤이 수십 주를 쳐서 아우르고 大王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다. 장잠망통 등이 그 고을에 이른 날, 바삐 다가앉아 비유 등을 써가며 느릿느릿 조용히 이야기하며 은근히 말하여 이르기를 “견훤이 예전부터 품은 뜻이 일본국을 받들고자 하여 전년에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조공을 바치고 배신조공(陪臣朝貢)이라 일컬었으나 반환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去正月十三日 新羅交易海藻貪羅鳴之口 飄蕩着對馬島下縣郡 嶋守經國加安存給糧食 并差加擬通事長岑望通 檢非違使秦滋景 送反全州 三月廿五日 滋景獨還來 申云全州王甄萱擊并數十州 稱大王 望通等到彼州之日 促座緩頰 慙慙語曰 萱有宿心 欲奉日本國 前年不勝丹疑進上朝貢 而稱陪臣貢調被反却也) 『扶桑略記』 第24卷, 延長 7년 5월 17일, [신라 敬順王 3, 후백제 甄萱 38, 929)]<sup>39)</sup>

이는 신라 선박이 제주도에서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구해서 싣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풍랑 때문에 대마도에 표류하였다는 내용이

39) 『扶桑略記』는 平安時代(794-1185) 僧 皇圓의 저술한 역사서이다. 전설상의 제1대 神武 天皇에서부터 堀河 천황(1086-1107)에 이르는 역사를 한문으로 쓴 編年史이다. 내용은 불교 관계 기사가 많고 전면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出典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귀중하다(高柳光壽 編, 『日本史辭典』, 角川書店, p.833).

다. 이에 대마도 도주 판상경국(坂上經國)이 선원들을 위로하고 식량을 주고 부하들을 보내 이를 후백제 서울 전주로 귀환시키고 있었다. 신라 선박이면 당연히 신라로 송환시켜야 하는데 후백제로 호송하였다. 아마도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기인하는 것 같다. 2년 전인 927년에 후백제 견훤은 신라 경주를 침입하여 경애왕을 자살시키고 경순왕의 족제(族弟)인 김부(金傅)를 경순왕으로 세우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탐지한 대마도 도주(島主)는 송전국인 후백제에 동조하여 장래를 도모하려는 수단으로 신라 선박을 일부러 후백제에 송환한 것 같다. 이것은 호송 임무를 맡은 대마도 관리들과 견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견훤은 전년에 배신(陪臣)이라 칭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오히려 일본국이 이를 반환하였다고 한다. 하여튼 이를 통하여 10세기 초에 탐라는 외부 육지와 단절되어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신라와 더불어 일상 식품인 해조류까지도 교역할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 위의 기록은 탐라의 이런 사실을 증언해 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하겠다.

#### IV. 고대일본의 탐라관(耽羅觀)

일본도 정식으로 탐라에 사신을 1회 보내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항해 중 폭풍을 만나 난파하여 본도에 피난한 일본인들도 있었다. 이들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阿波伎)를 보내서 공헌하였다. 이길런 박득서(伊吉連博得書)에 다음 같은 말이 있다. 신유년(辛酉年) 정월

25일에 월주에 돌아왔다. 4월 1일 월주로부터 上路를 따라 東에 돌아왔다. 7일 정안산(檉岸山)에 도착하니 날이 밝았다. 8일 닭이 울 무렵에 서남풍을 따라 배가 大海로 들어섰다.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고생하였다. 이러기를 9日 8夜하다가 겨우 탐라도에 도착하였다. 島人 왕자 아파기 등 9인이 문득 초대하여 위로하여 주었다. 그들은 같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공물을 조정에 바치려고 하였다. 5월 23일 朝倉의 조정에서 공물을 받들었다. 탐라가 入朝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다(『日本書紀』 齊明 7년 5월, 661) 耽羅始遣王子阿波伎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 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檉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即招慰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 ② 이날 현견양련수강(縣犬養連手纒)을 大使, 천원련가니(川原連加尼)를 小使로 삼아 탐라에 파견하였다(『日本書紀』 天武 13년 10월, 684) 是日縣犬養連手纒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 ③ 광사(廣嗣) 일행의 배가 지가도로부터 출발하여 동풍을 만나 4일을 갔다. 그때 섬이 보였는데 뱃사람이 탐라도라 하였다(『續日本記』 天平 12년 11월 5일, 740) 廣嗣之船從知駕嶋發 得東風往四日 行見嶋船上人云 是耽羅嶋也)
- ④ 견당사 제4선이 살마국중산군(薩摩國甌嶋郡)에 머물렀다. 그 지방 판관(判官) 해상진인(海上真人) 삼수(三狩) 등이 탐라도에 표착하였다가 섬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붙잡혔다. 단 녹사(錄事) 한국련원(韓國連源, 카라쿠니노미나모토) 등이 몰래 닻줄을 풀어 떠났다. 남은 무리 40여 명도 귀국하였다(『續日本記』 寶龜 10년 11월 10일, 778) 遣唐使第四船來泊薩摩國甌嶋郡 其判官海上真人三狩等漂着耽羅嶋 被嶋人略留 但錄事韓國連源等 陰謀解纜而去 率遺衆四十餘人而來歸).
- ⑤ 조당(朝堂)에서 당 사신에게 향연을 베풀었다. … 또한 해로가 험난

하여 한두 사신들은 바다에 빠져죽고 어떤 사람들은 탐라에 약탈당하였다. 짐이 이를 듣고 마음이 처참하였다(『續日本記』, 寶龜 10년 5월 17일, 779] 饗唐使於朝堂 … 又海路難險 一二使人 或漂沒海中 或被掠耽羅 朕聞之懷愴於懷).

- ⑥ 삼가 태정관우대변정삼품겸행월전국대수(太政官右大辨正三品兼行越前國大守) 등원조신(藤原朝臣) 하능(賀能) 등을 사신으로 삼아서 국신(國信) 별공(別貢) 등의 물건을 받들어 바칩니다. 賀能 등은 몸일 잇고 명을 받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중간 정도에 와서 폭풍우를 만나서 돛이 부러지고 키가 꺾어졌습니다. 높은 파도는 하늘에 퍼붓고 닿고 작은 배는 춤추듯이 흔들렸습니다. 南風이 아침에 불면 탐라의 이리 같은 마음에 간이 부서졌고, 북풍이 저녁에 불면 유구(琉球)의 호랑이 같은 성질에 쓸개를 잃었습니다(謹差太政官 右大辨 正三品 兼行越前國大守 藤原朝臣 賀能等 充使 奉獻國信別貢等物 賀能等 忘身 銜命 冒死 入海 既辭本涯 比及中途 暴雨穿帆 戕風折柁 高波拔漢 短舟齧齧 凱風朝扇 摧肝耽羅之狼心 北氣夕發 失膽留求之虎性[空海, 『性靈集』 卷5, 「爲大使與福州觀察使書」, 一首; 『性靈集』: 空海[774-835]의 漢詩文集, 성립연대: 804-834]40))

\* 짚은 글자-필자 강조

①에서 탐라사신이 일본에 파견된 이유가 나와 있다. 일본 월주에서 당으로 가던 일본 사신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9日 8夜 동안 海中에서 헤매다가 탐라도에 표류하였다. 이때 탐라 왕자 아파기들은 표착자들을 환대했고 또한 그들이 귀국할 때 그들의 배에 동승하여 조창(朝倉)에 있는 일본조정에 공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탐라가 일본에 조공의 교를 시작했는데 기록상만 해도 그것은 30회나 되고 있다.

40) 『日本古典文學大系』 71, 『性靈集』 卷五(岩波書店, 1963), p.367, 所收.



②는 일본이 大使·小使를 갖추어 탐라에 사절을 보낸 기록이다. 이는 탐라국이 과연 외교대상으로 삼을만한 실력을 갖춘 나라인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 같다. 이후 재차 일본사절 파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결론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③은 후지와라노히로츠구(藤原廣嗣)가天平 12년(740)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한 반란자들은 모로에(諸兄) 정권을 타도를 목적하였다가 조정(朝廷)에 패배하여 배를 타고 도주하였다. 도망 중에 탐라도(耽羅島) 근해에 이르렀다가 다시 역풍(逆風)을 만나九州 오도열도(五島列島)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잡혀 처형되었다.<sup>41)</sup> 그런데 탐라도와 구주 오도열도는 대략 220km 정도 떨어져 있다. 히로츠구 일행이 풍향의 변화에 따라 구주 연안과 이 섬을 왕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양쪽의 왕래하는 항해는 그리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은 탐라국이 일본에 사절을 빈번히 보낼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생각된다.

④에서 탐라인은 표착한 일본 견당사 제4선 선원들을 피습하여 억류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은 밤에 몰래 탈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남은 무리 40여 명도 나중에 귀국하였다 한다. 이는 탐라인이 표착한 일본인들에게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고, 때로는 억류하거나 사료 ⑤에서 보듯이 노략질도 하고 있었다.

⑤는 광인제(光仁帝)가 견당사(遣唐使) 일행의 일부가 항해 중에 익사하거나 탐라인에 의해 약탈당한 것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피로하고 있는 사료이다. 보통 일본의 견당사의 항해도(航海圖)로서는 대략 세

41) 『日本大百科全書』 20(小學館, 1989), p.307, 藤原廣嗣(ふじわらのひろつぐ) 條 및 青木和夫, 『日本の歴史』 3(奈良の都), pp.356-360. 이 책들에서 耽羅嶋은 'たむらのしま'로 音讀되고 있다.

종류가 있었다. (1) 축자(筑紫)의 대진(大津[博多港])부터 일기(壹岐)·대마(對馬)·한반도 南西 연안을 거쳐 西北에 항해하여 황해를 횡단하여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이르는 北路, (2) 九州 오도열도(五島列島)부터 일기에 동중국해를 거쳐서 양자강구(揚子江口) 부근을 목표로 하는 南路, (3) 九州 서해안을 남하하여 살마(薩摩)부터 종자도(種子島)·옥구도(屋久島)·엄미대도(奄美大島) 등의 섬들을 따라 항해하여 양자강구(揚子江口) 부근을 목표로 하는 남도로(南島路)가 있었다. 이중 북로는 7세기까지 이용되었고, 8, 9세기에는 견당사는 모두 남로를 취하고 있었다. 남도로는 남로를 취하지 못하여 표류했던 배들이 더듬었던 항로였다. 탐라는 이 항해로 중에 남로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견당사 배들이 난파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 시료들 중에서 특히 주의가 가는 것은 ④로서 소위 견당사 우미카미노미카리(海上三狩)<sup>42)</sup>의 억류(抑留) 사건의 전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이는 보구(寶龜) 6년(775) 4척이 출발하여 3척이 귀환한 보구 연간의 견당사의 경위이다. 775년 견당사 大使 좌백금모인(佐伯今毛人) 부사(副使) 대반익립(大伴益立)이 임명되었다. 776년(보구 7) 견당사 일행은 박다(博多)를 거쳐 오도열도(五島列島)에 정박하여 동중국해 진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大使가 임무를 사절하자 견당사 일행은 축자(筑紫)에서 1년 대기하였다. 다음해 777년 7월 3일, 새로 大使 소야석근(小野石根), 副使 대신말족(大神末足), 판관(判官) 해상삼수(海上三狩, 우미가미노미카리)·소야자야(小野滋野) 등이 4척의 배에 분승하여 재차 당으로 출발하였다. 8월 29일 사신 일행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양자강구(揚子江口) 강도(江

42) 青木和夫, 『日本の歴史』 3(奈良の都), pp.419-422.

都)에 도착하였고, 그들이 당나라의 서울 장안성(長安城)에 도착한 것은 다시 해가 바뀐 778(보구 9) 正月 13일이었다. 드디어 그들은 3월 22일 代宗 황제와 알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당에 유학생을 맡기고 귀국 준비를 마친 것은 778년(보구 9) 夏 4월 중순이었고, 4월 22일 太宗 황제에 고별을 하였다. 일행은 2개월 후에 강도에 되돌아와서 귀국의 길에 올랐다. 제3선은 778년 10월 23일 비전(肥前)에 도착하고, 뒤이어 11월 10일과 11월 13일에 제4선과 제2선이 각각 무사히 살마(薩摩)에 귀환하였다. 제1선은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후에 비후국(肥厚國) 도착하였다. 그런데 마키라 등이 탄 제4선이 중도에서 탐라도에 표착하여 섬에 억류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카라쿠니노미나모토가 닻줄을 끊고 탈출하여 살마국(薩摩國) 중도(甌島)에 귀환하였다.<sup>43)</sup>

모리는 사건 발생 후에 탐라가 일본측 문서에서 「탐라도(耽羅嶋)」라고 기재되었다는 데에 주목하여 이를 계기로 하여 탐라와 일본 간에는 통교가 단절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카리(三狩)가 탐라에 억류되었을 그 석방은 탐라와 일본 사이가 아니라 신라와 일본의 교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속일본기(續日本記)』의 사료 3개를 제시하고 있다.

- A 대재소감정육위상하도조신장인(大宰小監正六位上下道朝臣長人)을 견신라사(遣新羅使)로 삼았다. 이는 견당사판관해상삼수(遣唐使判官海上三狩) 등을 영접하려 함이었다(『續日本記』 寶龜 10년 2월, 778) 以大宰小監正六位上下道朝臣長人爲遣新羅使 爲迎遣唐使判官海上三狩等也).
- B 대재부(大宰府)에서 견신라사하도조신장인(遣新羅使下道朝臣長人)

43) 青木和夫, 『日本の歴史』 3(奈良の都), pp.415-416 및 pp.435-439.

등이 견당사판관해상진인삼수(遣唐判官海上眞人三狩) 등을 아직 귀환하지 않았다고 전언했다([上同書, 寶龜 10년 7월 丁丑] 大宰府言遣新羅使下道朝臣長人等 率遣唐判官海上眞人三狩等 未歸).

- C 신라사(新羅使)가 方物을 헌납하면서 견당사판관해상(遣唐判官海上) 삼수(三狩) 등을 찾아 얻어서 사신(使臣)을 따라 이들을 올립니다 하였다([上同書, 寶龜 11년 정월 辛未] 新羅使獻方物 仍奏曰 … 又訪得遣唐判官海上三狩等 隨使進之).

모리는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미카리 일행을 귀환시키기 위해 다음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한다. 견신라사(遣新羅使)가 임명되었고(A), 미카리 이하는 그들과 함께 귀국하고 있다(B). 신라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말했듯이 미카리 등이 신라의 손에 의해 「방득(訪得)」되어 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다(C). 그래서 모리는 미카리 일행이 귀국한 것은 탐라·일본 간에서 아니라 신라·일본 간의 교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이는 탐라는 이때 신라 지배하에 있었던 복속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과 탐라 관계는 제명(齊明) 7년 이후에 계속되었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는 8세기 이후에 일본 사료에 보이는 「탐라국(耽羅國)」이 아닌 「탐라도(耽羅嶋)」 표기와 더불어 7세기 이래 탐라·일본 관계가 전혀 단절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4)</sup>

필자는 탐라와 일본이 779년 일어난 미카리 억류사건 이후 소원해졌다는 점 이외에는 모리의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 ④에서 일본 견당사 미카리 일행은 탐라도에 억류되었고, 그중 녹사 한국련원 등은 몰래 닳줄을 풀고 섬을 탈출하였다. 그리고 남은 무리 40여 명을 거느리고 돌아 왔다(「錄事韓國連源等陰謀解纜而去 率遺衆四十餘人而來歸」).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재구성해 본다. 일본의 부탁을

44) 森 公章, 「耽羅方補考: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p.827.

받은 신라가 사절을 파견하여 탐라를 방문하였고, 양자 사이에는 외교적 절충이 있었다. 신라사(新羅使)는 「유중(遺衆)」, 곧 남은 무리 40여 명을 귀환시킬 것을 설득하였고, 탐라는 강국인 신라의 말을 들어서 이들을 신라로 송환하였고, 그 후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함과 동시에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이것이 ④에 나오는 신라사가 말하는 「訪得」의 내용이었다 하겠다. 모리는 외교적 절충 과정에서 탐라국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고 일본과 신라를 주축으로 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탐라가 외교권이 없는 신라의 복속국(服屬國)이라고 단정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말할 바이거나 탐라는 신라의 복속국이 아니라 조공국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사료에는 탐라가 「복속국」이라는 사실이 어디에도 안 보인다. 결국 복속국이란 모리의 선입관에 불과하다. 이런 선입관을 떠나서 사료들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신라가 탐라와 일본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탐라, 신라, 그리고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사신들을 파견하고 외교적 담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탐라의 존재가 너무 과도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⑥은 견당사 등원조신(藤原朝臣) 하능(賀能) 등이 국가의 명을 받고 중국으로 가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뱃길이었다. 그리고 항해 중에 만난 폭풍우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러한 폭풍뿐만 아니라, 만일 탐라나 流求(현재 오키나와) 등에 표류하였을 경우 그들이 만날 처지는 참혹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그들로 하여금 탐라의 낭심(狼心)에 간이 꺾이고, 유구의 호성(虎性, 호랑이의 성질)에 쓸개를 잃게 될 지경이라고 표현하게 하였다. 이는 심한 고생을 겪거나 놀람을 뜻하는 「최간담(摧肝膽)」<sup>45)</sup>을 풀어써서 일본 표류인들이 탐라와 유구에게 당할 고난을 빗댄 말이다. 이런 언어 구사에서

우리는 탐라나 유구 사람들이 일본 표류자들에 대한 노략질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⑥ 이외에도 탐라에 관한 한 설화가 1130-1140년대 성립되었다고 하는 『금석물어(今昔物語)』에 다음 같이 전해진다.

옛날에 九州 □□國 □□郡 주민이 장사하려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척 배를 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갔다가 고국(故國)에 돌아오는 도중, 규슈(九州)의 西南 방향으로 먼 곳에 큰 섬 하나를 발견했다. 이 섬을 보니 거기에는 사람 사는 기색이 있었는데 뱃사람들은 “이런 곳에 섬이 있더니, 내려서 식사나 하자”하면서 노 저어서 가까이 가서 섬에 올랐다. 어떤 자는 섬의 모습을 둘러보려고, 어떤 자는 젓가락의 □을 베려고 각자 흩어져 갔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산 쪽부터 많은 사람이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구나, 이런 낯선 곳에는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모두 서둘러 배에 뛰어들어서 해안을 떠났다. 좀 있다가 산 쪽에서 쿵쿵 발소리를 내며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 하고 살펴보니, 에보시(烏帽子)를 꺾어 쓰고, 수이칸하카마(水干袴)를 입은 남자들이 백 명 나타났다. 뱃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누구들이냐 물었다. 그 정도라면 무서울 것도 없지만 여기는 낯선 곳이니까 이 자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그들 숫자도 매우 많은 것 같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배를 한층 멀리 저어 떨어져 나갔다. 그 자들은 해안에 와서 배가 멀리 떨어져 가는 보자 마구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이를 본 뱃사람들은 원래 무술에 능한 자들이어서 활, 화살, 칼 따위를 각자 갖고 있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손마다 활을 잡아 시위를 매기고 큰 소리로 “그렇게 쫓아오는 너희들은 무엇하는 자이나 가까이 오면 쏘아 죽일 테다”하고 외쳤다. 그 자들은 모두 방비도 충분하지 않고 활과 화살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대

45) 「摧肝耽羅之狼心 北氣夕發 失膽留求之虎性」에서 「摧」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摧는 보통 字意인 「折」이 아니라 「앞어져 떨어지다」라는 「仆落」의 뜻인 것 같다(諸橋徹次, 『大漢和辭典』 5, 大修館書店, 1984, 「摧」條, p.356). 필자의 생각에는 흔히 우리가 놀랐을 때 하는 말인 「간 떨어진다」와 같지 않은가 한다.

개 손마다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잠시 있다가 그 자들은 모두 산 쪽으로 돌아갔다. 그것을 보고 뱃사람들은 이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쫓아 온지 모르고 무서워져서 노 저어서 훨씬 멀리 섬에서 멀리 하였다.

그 후 규슈(九州)에 돌아와서 이 일을 널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듣던 사람들 중에 한 노인이 있어 “이는 도라 度羅라는 섬이 틀림이 없다. 그 섬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 섬에 가면 그렇게 몰려와서 다짜고짜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먹는다고 듣고 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친 일은 잘한 처사였다. 만일 가까이 갔더라면 가령 백 천의 활과 화살이 있더라도 붙들린다면 어쩔 도리 없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뱃사람들은 이를 듣자 매우 놀라서 더욱더 무서워 떨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 중에는 천해서, 보통 인간의 식물과는 다른 이상한 것을 먹는 자를 가리켜서 度羅人이라 한다. 단지 □□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그 섬사람들이 度羅人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일은 上京했던 九州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今昔, 鎮西, □□國ノ□□郡ニ住ケル人, 商ノ爲ニ, 數ノ人一ツ船ニ乗テ, 不知又世界ニ行テ, 本國ニ返ケルニ, 鎮西ノ未申ノ方ニ當テ, 遙ノ息ニ大キナル鳴有ケリ. 人住タル氣色有ケレバ, 船ノ者共此ノ鳴ヲ見テ, 此ニ此ル鳴コソ有ケレ. 此ノ鳴ニ下テ食物ナドノ事ヲモセムト思テ, 漕寄セテ其ノ鳴ニ皆下ヌ. 或ハ鳴ノ體ヲ見廻リ, 或ハ箸□伐ラムトテ散散行ヌ.

而ル間, 山ノ方ヨリ多ノ人ノ來ル音シテ聞エケルバ, 恢ク此ル不知又所ニハ鬼モ有ラム. 由无シト思テ, 皆船ニ急ギ乗テ, 差去テ, 山ノ方ヨリ動シテ出來ル者ヲ, 何者ゾト遣見テ, 烏帽子折テ結タル男共ノ, 白キ水干袴着タル百餘人許出來タリ. 船ノ者共此ヲ見テ 早ウ 人也ケリ. 此レハ可恐キ事ニハ非ザリケリ. 但シ此ル不知又所ナレバ, 此奴共ニ被煞モゾ爲ル. 人ノ員極テ多カメリ. 近クハ不寄シ思手, 彌ヨ船ヲ差去テ見ケルニ, 此奴共海際來テ, 船ヲ差シ去テ見テ, 海ニ只下ニ下ケル時ニ, 船ノ者共, 本ヨリ

皆兵ニテ、弓箭兵仗ヲ各具シタリケレバ、手毎ニ弓箭モ取テ箭番テ、何者  
 共ノ此ク追テハ來ゾ。 近ク寄來バ射テムト云ケレバ、此奴共皆身ノ衛モ  
 不爲ズ、弓箭モ不持砂利ケリ、船ノ者共ハ多クノ人皆手毎ニ弓箭ヲ取テ  
 有ケレバニヤ、物不云ズシテ打見遣セテ、暫許有テ皆山様へ返入ニケリ。  
 其ノ時ニ船ノ者共、此ハ何カニ思テ、此奴共追ヒ來ルトモ不知ザリケレ  
 バ、恐レ成シテ遙ニ差去ニケリ。 然テ鎮西ニ返リテ後 此ノ事ヲ普ク人ニ  
 語ケレバ 其ノ中ニ年老タリケル者此レヲ聞テ云ク 其レハ度羅ノ鳴ト云フ  
 所ニコソ有ナレ 其ノ鳴ノ人ハ 人ノ形チニテハ有レドモ人ヲ食ト爲ル所也  
 然レバ案内不知ズシテ 人其ノ鳴ニ行スレバ 然集リ來テ人ヲ捕ヘテ 只煞  
 シテ食スルトコソ聞侍リシカ 其達ノ心賢クテ 近ク不寄セテ逃タルニコソ  
 有ナレ 近ク寄ナマシカバ 百千ノ弓箭有リトモ 取付ナムニハ不叶ズシテ  
 皆被煞ナマシト 船ニ有シ者共此レヲ聞テ 奇異ク思テナム彌ヨ怖レケリ。  
 此ニ依テ人ノ中ニモ弊キ者ノ 人ニ不似ズ弊キ物ナド食フ者ヲバ 度羅人  
 云也ケリ 只□□思フニ 此ク聞テ後ゾ 度羅人ト云事ヲバ知ケル 此ノ事ハ  
 鎮西ノ人京ニ上タリレガ語ケルヲ聞繼テ 此ク語り傳ヘタルナヤ [『今昔物  
 語』「鎮西人至度羅鳴語第十二」46)].

\* □: 결자(缺字) 부분

규슈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다니던 중 큰 섬 하나를 발견하여 상륙하  
 였다. 그러자 섬사람들이 몰려왔기에 활과 화살로 위협하여 도망 나왔  
 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를 전해들은 규슈의 한 노인이 그 섬은 도  
 라도(度羅鳴)이며 그 섬사람들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식인  
 종이라고 하고 있다(其鳴人 人形有人食爲所也). 또한 이 설화의 작자

46) 『今昔物語集』 4,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 38(小學館, 2002), pp.515-517, 所  
 收. 『今昔物語』는 전체 31권이며, 1130-1140년대에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 작자  
 는 未詳이다. 原文은 和漢混淆體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기한 서체에 현대 일본어  
 로 번역 대조되어 있다. 인용문은 필자가 그 현대역을 재차 韓譯한 것이다.



는 흔히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하천한 사람들을 도라인(度羅人)이라고 하게 된 연유가 이에서 비롯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설화 작자가 실제와는 정반대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화에서는 흔히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질서 있고, 문명화된 세계로 인식하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미지 세계를 무질서하고 야만적 세계로 묘사된다. 규슈 사람들은 당시 바다 저쪽에 있는 未知의 도라도 사람을 야만의 극단적인 상황인 「人食」者로 설정하여 자기들의 문명을 창출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다. 여기 등장한 노인은 바로 이런 二分法的 사고형태<sup>47)</sup>의 대변자였다고 하겠다. 실제 설화의 내용을 보면, 섬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이국인의 내방을 살피러 왔지 무엇 하나 약탈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 내방자가 섬을 약탈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정찰하여 미연이 방지하러 왔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무장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방문객들이 활과 창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위협적이었다. 설화 작자는 야만적이라는 탐라도에 관한 선입견을 갖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47) 山口昌男, 『文化と兩義性』(岩波書店, 2000), pp.88-89: 닛(タツ, 신령의 출현 의미)은 공간적으로 「이쪽」과 「저쪽」의 경계선이고, 兩義的 성격을 띠기 쉬운 장소이다. 境界는 内外外, 生과死, 此岸과 彼岸, 文化와 自然, 定着과 移動, 農耕과 荒幣, 豊饒와 滅亡이란 多義的 이미지의 중첩된 장소이다. 경계를 둘러싼 이러한 習俗은 多義性에서 형태상의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질서가 지배적이고, 이 질서 중에 모든 것은 항상적이고, 발생하는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쪽」은 바른 눈앞도 캄캄한 어둠이고, 모든 것이 不確定的이다. 물론 「이쪽」도 「저쪽」도 의식의 内側 상태의 投影에 지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쪽」은 意識의 下層에 있는 상태에 있는 投影物에 불과하며, 만일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작동하는 논리는 「그들」은 「우리들」의 한 쌍의 일부이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유용하다. 필자는 경계 영역으로 兩義性을 갖는 닛(タツ)을 海로 환치하면, 이 설화에 나오는 海, 琉球 그리고 度羅嶋의 상호 관계 설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 탐라와 조공제도

조공제도는 중국의 대외민족(對外民族)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통적 외교 양식이고 또한 그 시대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매우 長考를 요하는 복잡한 주제이므로 여기서 일일이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명의 전문 학자 학자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그 설명을 대신하겠다. 첫째, 김한규(金翰奎)의 견해로 중국은 진한제국(秦漢帝國)부터 중국이 주위 이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조공제도(朝貢制度), 책봉제도(冊封制度)를 마련하여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한다. 이렇게 조공제도와 책봉제도는 이질적인 별개의 제도들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것을 동반하는 표리관계의 동질적인 제도였다. 이것들이 간접적인 인민 지배를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면 다시 직접적-개별적 지배를 위해 변군체제(邊郡體制)를 마련하였다. 그 기원에 관해서 조공제도는 원래 서주(西周) 시대 봉건제도하의 제후(諸侯)가 주(周)天子에게 조근(朝覲)과 공물(貢物)의 신례(臣禮)를 행하고 주 천자는 이를 통해 제후들을 지배-통제하였던 일종의 정치적 지배수단이었다. 이것이 후에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외부로 확대하여 적용되게 되었다. 특히 진한시대에 이르러는 이민족과의 관계에만 적용되었다<sup>48)</sup>.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이후 니시지마로 약칭함)에 의하면 조공제도는 책봉체제의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고, 본질은 중국 왕조와 주변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책봉체제(冊封體制)이었다. 이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황제와 귀족·관료 간에 형성된 군신관계의 질서체제이었다<sup>49)</sup>. 그

48) 金翰奎,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일조각, 1982), pp.109-114.

49)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6-8世紀の東アジア』, 『日本歴史』2 古代2(岩波講座, 1962, pp.231-278.

것이 국내질서의 외연(外延) 부분으로 국제관계에 적용되어 중국왕조와 주변국가의 국제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중국왕조는 책봉관계에 있는 주변국가에 대하여 신절(臣節), 행례(行禮) 등을 요구하게 된다.<sup>50)</sup> 그런데 그는 이런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에 설정된 책봉체제를 중국 대신에 일본을 국제관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그 증거로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일본서기(日本書紀)』 기사를 들고 있다<sup>51)</sup>. 또한 그는 이 조공 기사들을 가지고 일본은 이런 양국에 대해 종주국(宗主國)의 위치에 있었고, 신라와 백제는 일본의 신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케이를 포함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일인 학자들은 대개 니시지마의 조공·책봉체제에 관한 설명 틀을 갖고 일본이 자기 영역은 물론하고 고대 한반도에 대해서도 패권을 가진 고대 「제국(帝國)」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은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니시지마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던 구체적 물적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설명 틀을 국제관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아니라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다 하겠다.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조공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문화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조공제도란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유교적 세계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종속 관계였다. 그것은 사신 교환과 외교관계의 관리, 주민의 본국송환과 도망자 인도, 중국 대 외국의 통상규제, 그리고 타부족(他部族)과 통치자들을 협박하고 감언으로 현혹하고 매

50) 앞 책, pp.275-276.

51) 앞 책, pp.271-274.

수하여 자위(自衛)하려는 특별한 중국적 노력의 모든 양상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문화적 원천이고 주위 여러 민족은 조공을 통해서만 모든 문화의 원천인 중국에 접촉할 수 있다는 문화주의의 표현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외국 군주들은 이런 중국적 국제질서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국내외적 질서를 유지하여 자기 정권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52)</sup>

필자는 조공에 관해서는 페어뱅크의 문화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여 이를 탐라의 조공외교에 원용하겠다. 즉 탐라국이 일본에게 조공하였다고 해서 일본 「제국」 질서 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탐라국이 일본의 첨단 문물·제도·지식을 수입하든지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외부 침입을 미연이 방지하고, 내부적 문화밀도를 높이려는 적극적 「國」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탐라국이 일본에 대한 사실판견과 조공은 해외정세 파악,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우호관계 설정, 그리고 첨단문물의 수입이란 목적에서 수행되었다고 하겠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한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최강국으로서 제시한 조공제도였다. 이 질서에 종속하지 않고서는 중국에 대해 어떤 나라도 무역을 할 수도 없었으며, 국가로서 자격도 승인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리 기미아키(森 公章, 이후 모리로 약칭함)의 고대 탐라에 대한 인식은 수긍할 수 없는 곳들이 많다. 그는 탐라국과 백제가 복속관계, 곧 정치적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고대탐라 역사를 조망(眺望)하고 있다.<sup>53)</sup> 그러나 실

52) Edwin. O. Reischauer ·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pp.317-319.

53) 森 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朝鮮學會, 1986), p.119.

상은 탐라국이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의제(擬制)한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불과하였다. 탐라가 백제국에 方物을 헌상했다든지(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삼국사기』, 文周王 2년 4월, 476]), 백제의 군사 정벌 위협 앞에 사절을 보내서 사죄했다든지(『삼국사기』, 東城王 20년 8월, 498년)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即耽牟羅)하였지 그 어디에도 백제가 탐라를 군사적 정복을 했다는 사례가 없다. 또한 「[上同書, 문무왕 19년 2월, 679] 發使略耽羅國」 했다는 간단한 기사를 가지고 그는 탐라가 신라의 복속국이 되었다고 한다.<sup>54)</sup> 그러나 탐라국은 여기서 신라의 속국이 되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탐라는 신라 애장왕 때까지 건재하여 신라에 재차 조공사절을 보내고 있었다(『삼국사기』, 哀莊王 2년 10월, 801] 耽羅國遣使朝貢).

이뿐만 아니라 모리의 이런 부정적인 고대탐라의 영상은 그의 논문(『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주 18 참조) 전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백제가 탐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 남제(南齊)와의 해상 교통을 개척하기 위한 일(같은 논문, p.120), 5-6세기 탐라는 백제에 복속되어 외교권이 박탈됨(같은 논문, p.123), 탐라의 지정학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부정(같은 논문, p.127), 탐라가 당나라 태산(泰山)에서 거행된 제천의례 참가를 일본의 후원을 유지하려 한 것(같은 논문, p.128), 日本으로부터 관위(冠位) 대을상(大乙上)의 수작(受爵) 등의 기사들을 일본에 복속한 것(같은 논문, p.133)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탐라 사절이 일본에 가서 받은 대을상과 같은 관작은 외교상 조공제도에 준하는 의례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사항들은 그의 주장

54) 앞 논문, p.135.

과는 정반대였을 사정에서 유래하였다. 곧 백제가 탐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국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보다는 일차적으로 탐라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관심이었고, 또한 탐라는 5~6세기에 백제에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증거는 역사서 아무 곳에도 없다.

더 나아가서 이 논문에서 모리는 신라역사까지도 그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마치 일본의 위성국처럼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이 신라에서 군사를 철수한 것은 당의 관심이 이때 서역(西域)으로 향했기 때문이라 하여(같은 논문, p.134)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군을 축출한 전쟁(671-676)에서 신라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한 제일 요인은 신라의 치열한 대당(對唐) 전쟁의 결과였지 단순한 서역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한 예를 보면, 文武王 15년(675) 9월 신라는 당장(唐將) 설인귀(薛仁貴), 이근행(李謹行)이 지휘하는 당군(唐軍)을 천성(泉城)·매초성(買肖城)에서 격파하여 戰馬 30,080필을 획득하였다. 이런 전과를 보아서 아마 이때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명의 대군이 신라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다.<sup>55)</sup> 당은 이런 군사적 실패로 인하여 676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만주 개평(蓋平)으로 옮기고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한반도에서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다.

재차 말하거니와 위와 같은 모리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그의 일본 중심의 편협한 망상에서 기인한 역사해석이라 하겠다. 그 망상이란 것이 중국 이외에는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에 있었으며 백제, 신라, 탐라 등이 일본이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위성국들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는 허상적(虛像的) 역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sup>56)</sup>. 이런

55) 『三國史記』文武王 15年: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 三百八十 其餘兵仗稱是.

역사 이해는 탐라국의 당시 사정만 보더라도 매우 터무니없는 것이다. 5-10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당이라든지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탐라국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동쪽의 한 도국(島國)에 불과했다. 그것도 일본은 동아시아를 규제하고 있던 조공제도조차도 이해 못하는 일개 「이적(夷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다음에 인용할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사료 ③에서 태산 회사(會祠)한 나라들의 기재 서열, 즉 신라-백제-탐라-왜국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이 서열순위가 당시 동아시아 역사상에서 일본이 가진 진정한 위치였을 것이다.

탐라는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조공제도를 그들의 활발한 해외활동에 잘 활용하여 이 지역에서 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이 이런 국제질서 속에 탐라를 신라·백제·왜국(倭國)과 더불어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것도 왜국보다 한 자리 앞에 두고 있었다. 중국 역사서들은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① 용삭(龍朔) 초에 탐라(儋羅)가 있었는데 그 왕은 유리도라(儒李都羅)였다. 왕은 사절을 보내 입조하였다. 탐라국(儋羅國)은 신라 무주 남쪽에 있는 섬이다. 그 풍속은 소박하나 누추하여서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 여름에는 가죽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 속에서 지낸다. 오곡이 나지만 경작하는데 소를 사용할 줄 모른다. 철제 고무래를 가지고 흙을 판다. 처음에 백제에 신속되었다. 인덕 연간에 추장이 내조하여 황제를 따라 태산에 이르렀다(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

56) 가게이 도시오(筧敏生), 「탐라왕권과 일본」, 같은 책, pp.269-271. 여기서 그는 일본=「帝國秩序」운운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일본학계의 전통인 것 같다. 一例: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6-8世紀の東アジア」,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1983), pp.415-467. 여기서 그는 동아시아가 중국과 위성국으로 백제, 신라를 거느린 일본이란 양자의 외교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理都羅 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衣犬豕皮 夏居革屋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新唐書』東夷列傳145 僂羅條; 龍朔: 唐高宗 年號: 661-663; 麟德: 唐高宗 年號: 664-665].

② 인덕(麟德) 2년 당 고종(高宗)이 웅진도위(熊津都尉) 부여용(扶餘隆)과 신라왕 김법민(金法敏)에게 명하여 옛날 원망을 풀게 하였다. 8월 임자일(壬子日)에 웅진성(熊津城)에서 동맹을 맺었다. 유인궤(劉仁軌)는 신라·백제·탐라·왜국 사절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왔다. 사절들은 태산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탐라국은 탐라국이라고도 하며 신라 무주 남쪽에 있는 섬이다. 처음에는 백제에 종속하였다가 후에 신라에 신속하였다]. 고려(고구려)도 역시 태자 복남을 보내 제사 시중을 들었다. (麟德二年 上命熊津都尉扶餘隆與新羅王法敏 釋去舊怨 八月壬子 同盟於熊津城 劉仁軌 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 浮海西還[耽羅國一曰僂羅 居新羅武州南島上 初附百濟 後附新羅] 會祠泰山 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資治通鑑』唐紀 高宗 麟德 二年條; 麟德 2년: 665]).

③ (유)인궤는 왜병(倭兵)을 백강(白江) 입구에서 만나 네 번 싸워서 네 번 이겼다. 그 배 400척을 불 질렀다.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닿았으며 바닷물도 모두 적색이었다. 적 무리들이 크게 무너졌다. 부여풍(扶餘豐)이 몸을 빼어서 도망갔다. 그의 보검을 얻었다. 가짜 왕자 부여충승(忠勝)·충지(忠志) 등은 士女, 왜(倭) 무리, 그리고 탐라사를 거느리고 일시에 항복하였다. 백제 여러 성이 모두 귀순하였다. 적의 우두머리 지수신(遲受信)은 임존성(任存城)에 의지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 인덕 2년 태산에서 제천(祭天)하였다. (유)인궤는 신라·백제·탐라·왜의 네 추장을 거느리고 그 제사에 참석하였다. 고종은 매우 기뻐서 유인궤를 대사헌에 발탁하였다([劉]仁軌 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 及倭衆並耽羅國使 一時並降 百濟諸城 皆復歸順 賊首遲受信 據任存城不降 … 麟德二年 封泰山



仁軌領新羅及百濟耽羅倭四國會長赴會 高宗甚悅 擢拜大司憲 [『舊唐書』劉仁軌傳].

사료 ①에서 용삭 초(661년) 탐라왕 유리도라가 당에 입조(入朝)하였고, 인덕 연간(664-665) 탐라 추장이 황제를 따라 太山에 갔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太山에서 베풀어진 당 황제의 봉선(封禪)<sup>57)</sup>이라는 제천의례(祭天儀禮)에 참석하였다. ②에서 인덕 2년(665년) 탐라사자는 신라, 백제, 왜국 사절들과 더불어 대등한 자격으로 당장(唐將) 유인체를 수행하여 중국 태산에 가서 제천의식에 회동(會同)하고 있었다. 당은 탐라를 왜국, 백제, 신라와 더불어 외교상 아무런 차별 없이 대등하게 한 국가로서 대우하고 있었다. ③은 663년 8월 27, 28일 양일 간에 벌어진 백제 부흥을 도우려고 파견된 왜군 4백 척과 2만 7천 병력이 신라군과 당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된 白村江[錦江口] 전투<sup>58)</sup>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자료이다. 전투 후에 살아남은 왜중(倭衆)과 탐라국사신이 일시에 항복한 것으로 보아서 탐라국은 왜병(倭兵)과 더불어 참전을 하였거

57) 金相範, 『唐前期封禪儀禮의展開와 그意義』, 『역사문화연구』 17(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p.50. 唐高宗의 建封封禪에는 突厥·于闐·波斯·昆侖·烏菴·倭國·新羅·高句麗·百濟·耽羅 등 각국에서 온 會長들과 使臣들이 참여했다. 太宗과 高宗을 거치며 완성된 大唐世界帝國의 위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과 國際秩序를 확인시키는 의례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도 建封封禪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봉선이 점차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의례에서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의례로 변모해 가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58) 遠山美都男, 『白村江』(講談社, 1998), pp.197-211. 그런데 일본의 백제 구원군을 3만 2천명이라고도 한다. 이는 선발부대인 제1군 5천여 명의 포함 여부에 달린 것 같다. 하여튼 일본군은 제1군을 포함하여 함께 35,000명이고 실로 국운을 건 大出兵이었다. 동원 범위는 기록에 남은 것만으로도 筑紫, 筑後, 肥後, 伊予, 讚岐, 備後, 陸奥의 諸國에 이르고, 西日本の 전지역에서 舊國造의 지휘 하에 다수의 농민이 징발되었다고 추정된다(直木孝次郎, 『日本の歴史』 2(古代國家の成立), 293-294).

나 관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2년 후인 인덕 2년에 신라·백제·탐라·왜의 4국 추장들이 당장 유인제를 수행하여 태산에 가서 제천의식에 참석하였다.

우리가 이 사료들을 대할 때, 탐라국과 같은 소국이 어떻게 백제, 신라, 왜국과 더불어 동등한 대우를 당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재적 역사 상황을 과거 역사에 투사하는 관점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당시 탐라국은 해외 무역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정보<sup>59)</sup>을 통해서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인 조공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동북아시아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탐라가 이때 학습한 것이 조공제도이며, 또한 이를 당, 백제, 왜국 관계설정에 능숙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이 당의 호의를 얻게 되어서, 이런 조공제도를 무시한 왜국보다도 한층 우대된 연유가 아닌가 한다. 적어도 탐라국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외교에서 왜국 보다 한 발 앞섰다고 하겠다.

59) 진영일, 「古代耽羅의 교역과 '國'의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濟州島史研究會, 1994), pp.15-17: 5세기말-10세기에 걸쳐서 탐라국이 백제, 중국, 일본 등과 국제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탐라국은 무역을 통해서 단순히 財富만을 축적하여 國의 형성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같은 논문, pp.32-33: 국제간의 무역은 국제적 국제간의 物品交換이다. 물품교환이 습관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할 때, 거기에는 情報도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 간에 전체 상호작용 A는 물품 G와 정보 I의 交換總量이다(집단 간 총상호작용량  $A = \sum A_{ij} = \sum G_{ij} + \sum I_{ij}$ ). 따라서 고고학자들에게 무역연구는 대부분 교환에서 물품과 정보의 연합, 즉 경제의 附着的局面 때문에 사회연구에 중심적이다. 더 나아가서 물질과 사회의 연합, 물품과 정보의 연합, 이런 附着性은 사회의 보통 상태에서 인간 상호작용이 기능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Colin Renfrew, "trade as Action at a Distance",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ed. J. A. Sabloff et al.,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75], pp.5-6). 결국 한 공동체가 외부공동체와 더불어 물품교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때 공동체들은 서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 VI. 맺음말

이 글은 약 500년에 걸쳐 존재한 고대 탐라국을 가능한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여 탐라국의 사정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탐라 관련된 사료들이 매우 단편적이고, 또한 영세하여서 필자는 당시 조공제도라는 국제관계에 착안하여 그 관점에서 사료들을 해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탐라는 문주왕 2년(476) 백제에 공물을 바치고 있다. 이때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에 의하여 백제 국토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남천(南遷)하는 일대 국난에 처한 시기였다. 탐라는 이런 주위 국제적 격변하는 정세를 탐지하여 백제의 흥망을 살피려 사절을 보낸 것 같다. 이처럼 탐라는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조차 국제적 계기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곧 탐라국의 성립 조건이 해외교역이라든지 주위 강대국에 대한 조공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탐라는 문무왕 2년에 신라에 조공하였다. 이때도 예의 백제의 경우와 같이 한반도에서 중대한 사건, 즉 백제가 멸망이라는 일대사건이 일어난 다음 2년 후이었다. 탐라는 승전국이며 한반도 패권국(霸權國)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는 조공외교를 전개한 것이라 생각된다.

백제 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이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궤멸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전투 2년 후인 665년 당장 유인궤 신라·백제·탐라사신들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가 태산에서 제천의식을 올렸다. 이것도 내륙에서 중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탐라사신이

전투의 귀추를 예의 관찰하고 있었다는 말해준다. 그리고 이때 탐라사절은 신라·백제·일본과 나란히 제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서열순위는 일본의 그것보다 한 자리 앞섰다. 이는 탐라 국가적 실력보다 당에 대한 조공외교를 적절히 구사하여 당의 호의를 얻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것도 역시 탐라국의 정체성이 해외교역과 조공이라는 국제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7세기 후반에 탐라는 백제가 망하자 일본에 조공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30회에 달하는 탐라사절의 파견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백제 대신에 새로운 동맹관계를 일본에 구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 방법은 조공을 통하여 일본조정에 공물을 바치고 양국 간의 우의를 맺는 국제관계 설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조정은 탐라국의 이런 조공외교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탐라는 사절 파견으로 인하여 많은 물품, 곡식 종자, 농경 기구를 받아 가지고 왔다. 이는 탐라의 조공외교가 단순한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조치일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선진문물을 습득하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런 문물과 지식의 습득은 탐라국의 생존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일인 학자들의 고대탐라에 대한 가진 역사상을 비판하였다. 특히 모리 기미야키(森 公章)가 탐라의 조공외교를 정치적 지배-피지배 관계로 파악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 필자는 반론을 집중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 규정인 조공제도에 의해 탐라와 주변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었지 단순히 지배 종속관계가 아니었다는 필자의 견해이다. 결국 모리의 견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중국의 한 축(軸)에 대응되는 다른 한 축이었다는 소위 제국설이라는 역사적 허상에 근거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대 동아시아에서 신라·백제·탐라는 고대 일본 「제국」의 위성국들이 되어버린다. 이런 견해는 조공제도를 오독(誤讀)하는 데서 생긴 역사적 허상이었음에 불과하였다.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면서 새삼 하게 된 각성은 탐라가 5~10세기 동안에 이미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 편입되어 있어서 탐라 자체만으로는 역사적 행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대탐라는 당·백제·고구려·신라·일본하고 서로 밀접하게 통교하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다. 탐라는 그 방법으로써 중국이 제시하는 조공제도라는 「유교적 세계질서」를 숙지하고 국제관계에 적용함으로써 국가생존을 도모하였다. 또한 탐라국은 조공을 매개하여 주위의 선진 국가들로부터 선진문물들을 도입하여 내부의 문화적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겠다. 결국 고대 탐라의 국제적 개방성과 선진문물의 습득이 한 국가로서 500년간 생존할 수는 조건이 되었다 하겠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舊唐書』 『新唐書』 『日本書紀』 『續日本記』 『今昔物語』 『性靈集』  
『扶桑略記』
- 고창석 편역,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 김공칠, 『原始韓日共通語의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 『耽羅語 研究: 濟州方言의 源流』, 한국문화사, 1999.
- 김상범, 『唐 前期 封禪儀禮의 展開와 그 意義』, 『역사문화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 김한규, 『古代中國의 世界秩序 研究』, 일조각, 1982.
-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1999
- 김용선, 『고려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노명호, 『高麗時代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韓國史研究會, 1999.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 ,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研究』, 『인문학연구』 6, 제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 , 『고려 숙종 10년 ‘耽羅郡’ 설치 고찰』, 『耽羅文化』 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 『고려기 탐라 성주 고찰』, 『인문학연구』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 『고려조 탐라과전 외관 고찰』 『耽羅文化』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6-8世紀の東アジア』, 『日本歴史』 2, 岩波講

座, 1962.

- 森 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朝鮮學會, 1981.
- , 『耽羅方牘考: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續日本記研究』 239, 1985.
- 箕 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耽羅文化』 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遠山美都男, 『白村江』, 講談社, 1998.
- 直木孝次郎, 『日本の歴史』 2(古代國家の成立), 中央公論新社, 2004.
- 青木和夫, 『日本の歴史』 3(奈良の都), 中央公論社, 2004.
- 山口昌男, 『文化と兩義性』, 岩波書店, 2000.

- Morton Fried,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ciety*, Random House Inc., 1967.
- Edwin O. Reischauer ·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Asia Tra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 Abstract

## Foreign Relations in Ancient Tamra Kingdom

Jin, Yeong-i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ancient Tamra Kingdom by looking at it with as various angles as possible which had existed for about five hundred years. But, since the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Tamra Kingdom are in fragments and small in number,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by interpreting the documents with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a tributary system:

Tamra Kingdom in the second year of King Munju (A.D. 476) paid tribute to Baekje Kingdom. At this time, Baekje was faced with a national crisis which Hansung, the capital of Baekje Kingdom at that time, had fallen by King Jangsu of Koguryo Kingdom and Baekje Kingdom had to move its capital into Woongjin southward. It seemed that Tamra Kingdom sent envoys to Baekje Kingdom to investigate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is way, Tamra Kingdom appeared in the history book for the first time as utilizing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momentum. This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of Tamra Kingdom was closely related to foreign trade or tributary diplomacy with surrounding strong powers.

Tamra Kingdom in the second year of King Munmu paid tribute to Silla Kingdom. This was when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Korean

---

\*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Cheju National University



Peninsula, that is the fall of Baekje Kingdom, had occurred two years before. By sending envoys to Silla Kingdom which won the battle and became dominant in the Korean Peninsular, Tamra Kingdom seemed to develop a tributary diplomacy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illa Kingdom.

The allied forces from the army for reconstructing Baekje Kingdom and Japanese army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the allied forces from Silla Kingdom and Tang Kingdom at the battle of Baekchongang in A. D. 663. In A.D. 665, two year after this battle, Yingue Yu, a general from Tang Kingdom, went back to Tang together with envoys from Silla, Baekje and Tamra to perform a ceremony toward Heaven. This incident also shows that whenever an important war occurred, Tamra envoys carefully watched how it would develop. When Tamra envoys attended the ceremony with envoys from Silla, Baekje, and Japan, they are rather above Japanese envoys in rank. This seemed to mean not that Tamra was stronger than Japan, but that Tamra's proper tributary diplomacy pleased Tang Kingdom. This also is the case which shows that Tamra's identity was related to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foreign trade and tributary diplomacy.

When Baekje perished late in the 7th century, Tamra searched for new international relation by paying tribute to Japan. According to the Historical Document of Japan, Tamra sent envoys almost thirty times. This is regarded as an attempt to seek new alliance with Japan instead of Baekje. The way Tamra took was to set up the positiv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amra and Japan by paying tribute to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 however, was indifferent to such a tributary diplomacy by Tamra. Tamra envoys, however, brought many goods, grain seeds, and agricultural tools into Tamra. Tamra's tributary diplomacy provided not only with mere political measures for security, but also with opportunity for learning cultures, knowledge

and institutions abroad. Acquiring these cultures and knowledge became a condition for the survival of Tamra Kingdom.

This paper criticizes Japanese scholars' views on ancient Tamra Kingdom. The criticism is especially directed to Kimiaki Mori(森 公章) who looked at Tamra's tributary diplomacy as rule-ruled relationship. Paying attention to tributary system which was the international rules of East Asia at that time, my interpretation says that it enabled Tamra to set for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nations. Mori's view was grounded on a historical false image such as the theory of Japanese Empire which said that Japan at that time together with China formed two axial states. Then, Tamra, together with Silla and Baekje, in ancient East Asia, became a satellite nation of ancient Japanese Empire. This paper emphasized that Mori's view was a historical false image due to his misreading of tributary system.

**Key Words**

tribute system, Tamra Kingdom, suzerain state, subordinate state, Tang, Baekje, Silla, Japan

교신: 진영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엄광아파트 1동 206호  
(E-mail: ynglchin@cheju.ac.kr 전화: 064-764-2776)

최초 투고일 2006. 12. 15

최종 접수일 2007. 1. 23